

碩士學位論文

遠藤周作의 『깊은 강(深い河)』 考察

指導教授 金 鸞 姬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河 明 正

2002年 8月

# 遠藤周作의 『깊은 강(深い河)』 考察

指導教授 金 鸞 姬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5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河明正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2年 6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 遠藤周作의 『깊은 강(深い河)』考察

河 明 正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鸞 姬

엔도슈사쿠(遠藤周作)는 일본의 「제3의 신인」 작가이자 일본의 대표적 가톨릭 작가이다. 그의 작품의 특징은 작품全面에 가톨릭적 종교관이 투영되어 있다. 또한 일본인의 신앙과 서구 기독교적 신앙간의 <距離感>을 하나의 문제의식으로 다루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제의 깊이가 인간의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닌, 영혼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것에 있다.

엔도 문학의 주제는 唯一神論의 신념을 가진 종교인 가톨릭 신앙을 어머니에 의해서 他意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첫째, 가톨릭적 종교관으로 대표되어지는 서구 사회와 범신론적 풍토에서 자라난 엔도의 사고 가운데 이질감으로 느껴졌던 <동·서양의 距離感의 극복>의 문제와 둘째, <일본에 있어서 唯一神의 인식>문제였다.

本稿에서 연구한 『깊은 강(深い河)』은 엔도의 末期 작품으로, 유년 시절부터 말년의 생애를 정리함과 더불어 엔도 문학의 일생의 주제가 되어진 동·서양의 <距離感>과 일본에 있어서 唯一神의 인식 문제를 해결하는데 작품의 의의가 있겠다고 하겠다.

<동·서양의 距離感>의 문제는 어린 시절의 異郷體驗과 타의에 의해서 받아들인 서구 가톨릭 종교와 프랑스 유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나타났으나 이는 소설 가운데 다양성과 포용력이 존재하는 인도라는 제 3의 공간으로 그 <距離感>을 해결하게 된다. 또한 본질적으로 서구의 唯一神論적 감각을 지니고 있지 않은 동양인에게 있어서 神을 인식시키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한 엔도는 일본인에게서 구의 唯一神의 모습을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모색을 하게 된다.

---

※ 본 논문은 2002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즉 神과의 <距離感>을 해소하기 위해서 엔도는 神의 매개체인 갠지스강, 동물, 약자, 힌두교의 여신을 통해서 동양인에게 알맞은 神을 모색하게 된다. 엔도는 이러한 매개체뿐만이 아니라 神과의 <距離感>을 해소하기 위해서 범신론적인 사고방식을 수용하여 만물 가운데서 神의 모습을 찾고 있다. 그리고 존 희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적 다원주의의 이론을 작품 안에 끌어들이므로써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神을 인정함과 동시에 神의 구원에 이르는 길을 하나로 제시함으로써 동양과 서양의 神에 대한 상반되는 관점을 해소하였다. 또한 엔도는 자신이 느끼는 神의 모습을 사랑으로 활동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엔도의 『깊은 강(深い河)』이 장편 소설로 생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것에 있어서도 의의가 깊지만 엔도 문학의 주제를 정리하였으며 일본인의 감성에 적중하는 神의 모습을 찾았다고 하는데 또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목 차

국 문 초 록	i
I. 서 론	1
II. 본 론	6
1. 동·서양의 距離感	6
1) 距離感의 발단 요인	6
2) 距離感和 갈등	11
3) 距離感의 해소	18
2. 神과의 感離感 해소 방안	24
1) 媒介體	25
① 鑑지스강	25
② 動物	30
③ 弱者	33
④ 他宗教-힌두교의 女神	36
2) 해결책	41
III. 결 론	52
참 고 문 헌	54
Abstract	57

# I. 서 론

국내에서 『침묵(沈黙)』(1966)으로 잘 알려진 遠藤周作(엔도슈사쿠: 1923-1996. 이하 엔도라 칭한다)는 소설과 더불어 수필, 전기, 희곡, 평론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품 활동을 한 일본의 「제3의 신인」<sup>1)</sup> 작가이자 일본의 대표적 가톨릭 작가이다. 국내에서 엔도의 작품들은 가톨릭적 종교관의 색채로 인해 일종의 교양 종교서적으로 애독되고 있다. 그리고 나약한 인간의 갈등하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 深淵의 무기력함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엔도 문학의 인기는 단순히 종교적 심상이 풍부한 문학으로서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독자와 교감을 일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엔도의 문학이 일본뿐만이 아니라 동·서양을 넘나드는 여러 국가에서 애독되고 있는 이유는 엔도 문학의 특징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작품의 특징은 작품 全面에 가톨릭적 종교관이 투영되어 있으며 일본인의 신앙과 서구 기독교적 신앙간의 <距離感>을 하나의 문제의식으로 다루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제의 깊이가 인간의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닌, 영혼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것에 있다.

知的 행위의 문학과 민감한 감성이 요구되는 종교라는 두 요소의 二律背反적인 한계점을 극복한 엔도 문학의 부단한 주제는 唯一神論의 종교인 가톨릭 신앙을 어머니에 의해서 他意的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첫째, 일본의 문화가 지닌 汎神論의<sup>2)</sup>, 애니미즘적<sup>3)</sup>인 풍토에서 <

---

1) 제3의 신인: 1961년부터 1926년 사이에 출생하고 청년기에 전쟁을 체험하였으며 고도 성장기에 문단 생활을 한 작가를 일컫는다. 戰後派의 정치성, 관념성이 짙은 문장과는 달리, 일상적인 세계를 중시하고 인간 생활의 실상을 세밀하게 묘사했다. 일본의 근대문학중 사소설의 전통을 계승하였으며 일본적 현대문학을 형성시켰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安岡章太郎(야스오카쇼타로), 吉行淳之介(요시유키준노스케), 小島信夫(고지마노부오), 庄野潤三(쇼노준조), 阿川弘之(아가와히로유키) 등이 있다.

일본에 있어서 唯一神의 인식>문제 둘째, 가톨릭적 종교관으로 대표되어지는 서구 사회와, 汎神論의 풍토에서 자라난 엔도의 사고 가운데 이질감으로 느껴졌던 <동·서양의 距離感의 극복>의 문제였다. 이 두 가지의 주제는 엔도 一生의 과제로 여겨지며 문학에서도 일관되게 추구되고 있다.

엔도 문학의 창작 시기는 前期(1954-1965), 中期(1966-1982), 末期(1986-1996)<sup>4)</sup>의 세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세 시기의 문학의 주제는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으나 주제의 도출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前期(1954-1965) 문학의 대표작으로 일컬어지는 『아덴 까지(アデンまで)』(1954), 『하얀 사람(白い人)』(1955), 『노란 사람(黄色い人)』(1955), 에서는 1950년부터 3년에 걸친 작가의 프랑스 유학 생활을 통해 심화되어진 동·서양의 사상적, 인종적, 풍토적 <距離感>을 <동·서양의 距離感> 이라는 주제로 부각시켰다. 이 시기는 <일본인에게 있어서 唯一神의 인식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프랑스에서 체험한 가톨릭적 세계관에 대한 모순과 이질감을 작품에 나타내었다. 中期(1966-1982) 작품의 경우 前期 작품에서 느꼈던 서구 사회에 대한 이질감과 <距離感>의 원인을 일본인의 감성으로 찾아 나아가는 과정이다. 中期의 대표적인 작품인 『침묵(沈黙)』과 『사무라이(侍)』(1980)는 기독교 탄압 시대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여

- 
- 2) 범신론(pantheism): 존재하는 것은 하나로 귀착되며 이 하나는 신이라고 하는 사상. 신을 세계를 통일하는 보편적 원리로 생각하는 점에서 합리적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반면 주관과 객관과의 절대적 합일을 주장해서 신비주의에 이르기 쉽다.
  - 3) 영국의 인류학자 E.B.타일러가 <원시문화>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무생물계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는 세계관을 말한다. 물신숭배(物神崇拜), 영혼신앙(靈魂信仰), 만유정령설(萬有精靈說)이 라고 번역되는 애니미즘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아니마(영혼)에서 나온 말이다. 애니미즘적 사고 방식은 종교의 기원을 설명하는 동시에 나아가 종교의 근본 원리가 되었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된다.
  - 4) 사토야스마사 (佐藤泰正)의 분류에 의하면 엔도의 작품을 前期, 中期, 末期로 구분하는데 前期는 『沈黙』 이전의 작품들(1954-1965)을, 中期는 『沈黙』부터 『侍』(1966-1982)를, 그리고 末期는 『스キャンダル』부터의 작품(1986-1996)으로 나누고 있다.

汎神論的인 일본 풍토가 서구의 唯一神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唯一神의 인식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이 쓰여져 있다. 마지막으로 末期(1983-1996) 문학의 특징은 前期와 中期의 <동양과 서양> 그리고 <일본인과 神>의 대립적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末期의 대표작인 『깊은 강(深い河)』(1996)에서는 엔도 문학의 두 가지 큰 주제였던 <일본에 있어서 唯一神의 인식 문제>와 <동·서양의 距離感 극복>을 대립적 구도로 해결하기보다, 두 주제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동시에 갈등 해소의 방법을 제시한 작품으로 보고자 한다. 그러한 갈등 해소의 방법은 동양과, 서양이라는 二分法的인 논리에 의한 해결이 아닌, 동·서양의 <距離感>을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한계를 일본의 汎神論的 사고까지 수용하는 융화와 포용의 방법인 것이다.

本稿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깊은 강(深い河)』은 1993년 엔도가 70세 되던 해에 講談社에서 간행되어진 마지막 장편 소설로 그 이듬해 제35회 毎日藝術賞을 수상한 작품이다. 이 소설은 短章들을 연결한 13章으로 구성된 움니버스식 구조를 취하고 있다. 각 章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4명의 주요 인물 오오츠(大津), 누마다(沼田), 키쿠치(木口), 미즈코(美津子)는 과거에 각각 어두운 기억들로 각인 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우연히 인도로 떠나는 단체 여행에서 한 그룹으로 만나게 되고 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여행의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에서 소중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며, 인도라는 나라 안에서 그들이 가진 어두운 상처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 이들 중에서 특히 소설의 주요 인물로 나오는 오오츠는 동양인의 基底에 흐르는 汎神論적 사고로 서양의 가톨릭과 唯一神을 재인식하고 神의 사랑을 자신의 행동으로 과감히 실천하고자 한다. 그 반면 미즈코는 과거에 자신이 조롱하며 놀리던 <약자>의 全形이었던 오오츠의 모습에서 자신이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랑과



神의 모습을 찾게 된다.

이 소설 가운데 엔도는 定形化되어 있었던 唯一神의 모습을 일본인의 감각과 가톨릭 신자라는 입장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조명하고, 서구의 이분법적 사고를 통한 갈등 해소가 아닌, 다양한 논리가 공존하는 인도라는 공간을 무대로 함으로써 두 주제의 갈등을 해소 하고자 하였다.

일본에서 엔도의 연구는 논문뿐만이 아니라 단행본, 학술지, 잡지를 통한 연구가 활발하고, 국내에서도 엔도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고 있는데 1988년부터 2001년까지 엔도 문학에 대한 학위 논문<sup>5)</sup>을 살펴보면 13개의 학위 논문 중 『沈黙』을 중심으로 한 논문이 5편, 『깊은 강(深い河)』을 중심으로 한 논문이 3편, 그 외의 주제가 나머지를 차지했다. 이 두 작품은 엔도 스스로도 대표작으로 꼽고 있을 정도로 잘 알려진 작품인 만큼 엔도 문학 연구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까지 엔도 문학에 관한 연구의 초점은 <동·서양의 距離感>이 소설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에 대한 연구와, <神>의 의미를 고찰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本稿는 <동·서양의 距離感>의 생성 원인과 작품 안에서 <距離感>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에 대한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고찰 하고자 한다. 첫째, 末期 작품인 『깊은 강(深い河)』안에서 <동·서양의 距離感>이 어떻게 극복되어 가는가와, 둘째, 엔도가 汎神論的 사고를 지닌 일본인들에게 唯一神과의 <距離感>을 해소하기 위해 神의 매개체를 어떤 것으로 삼고 있는지 알아보며 셋째, 유일신과 범신론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으로 노력하고 있는가를 엔도 문학의 集大成이라 일컬어지는 『깊은 강(深い河)』을 통해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本稿의 『깊은 강(深い河)』의 인용은 講談社文庫 간행 『깊은 강(深い河)』

---

5) 논문에 관한 정보의 수집은 국회 전자 도서관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을 텍스트로 했다. 번역은 1994년 고려원이 간행하고 이성순씨가 번역한 『깊은 강』을 참고하되, 본인의 역을 주로 했다.



## II. 본 론

### 1. 동·서양의 距離感

일본인에게 있어서 동·서양의 <距離感>에 대한 문제는 비단 엔도의 문제 뿐만은 아니었다. 동양의 전통적 가치 기준은 자연과의 합일, 통일로서 많은 가치가 혼재된 채 나뉘대로의 균형을 이루는 체계이다. 그러나 일본 사회가 급격한 체제 변화를 갖추고, 明治維新 이후 정치, 사회, 문화의 가치 기준이 서양의 이분법적 가치 기준으로 바뀌면서부터 지식인들은 동·서양의 차이에 대해 심각한 문제 의식을 지니고 나뉘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색해 왔다. 그리고 엔도가 겪었던 태평양전쟁을 전후한 시기는 일본이 明治時代 이후 강화해 왔던 내셔널리즘의 질서 체계가 붕괴되고 미 점령군(GHQ)<sup>6)</sup>에 의해서 헌법마저 개정되는 굴욕적인 개혁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엔도에게 있어서 동·서양의 지리적인 <距離感>뿐만이 아니라 사상적, 이데올로기적 이질감 및 갈등을 절실히 체감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 1) 距離感의 발단 요인

엔도가 동·서양의 <距離感>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된 계기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戰後 최초의 유학생으로 프랑스에서 유학을 경험했

---

6) GHQ (General Head Quarters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총사령 본부-일본의 2차 세계대전의 항복 후 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은 1945년 8월부터 일본에 진주하였는데 9월2일 항복 문서에 근거하여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총사령 본부를 설치했다. GHQ는 맥아더 최고사령관을 중심으로 군사와 민사 행정을 담당하고 일본 정부에 지령, 권고하는 방식으로 일본을 점령 관리하는 간접 통치 방식을 지향하였다.

던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엔도는 27세부터 30세까지 패전국의 시민으로서 당시 일본 대사관도 없는 프랑스라는 서구의 중심지에 내 던져진 셈이며, 이때 느낀 동·서양의 차이는 <距離感>으로 엔도의 문학에 있어서 중요한 제재와 주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엔도는 <距離感>이라는 모티프를 유년 시절부터 막연하게나마 느끼고 있었다. <距離感>의 모티프의 근원을 알아보기 위해 그의 약력을 간략하게 소개 하고자 한다.

엔도는 1923년 3월 東京 스가모(巢鴨)에서 은행원인 아버지와 바이올린을 전공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3세가 되던 해에 아버지의 전근으로 중국의 동북 지방인 大連으로 이주하게 된다. 엔도가 10살이 되던 1933년,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혼으로 인해 어머니를 따라 일본으로 귀향하기 전 까지 엔도는 일본의 식민지였던 大連에서 살게 된다. 이때 엔도의 異郷體驗은 理性에 의해서 분별되어 자각되어지는 <距離感>이 아닌 무의식에 의해 자각된 <距離感>을 느끼게 되는데 엔도는 그의 異郷體驗에 대하여 대담집 『인생의 동반자(人生の同伴者)』(1991)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 일본에 돌아왔을 때 상당한 距離感, 단절감을 일본 안에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풍경, 집, 도로를 보아도 내가 자랐던 곳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距離는 매우 강렬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대련에서 살았던 것은 나의 의식 안에 무엇인가를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それではじめて日本へ帰ってきた時、たいへんな距離感、断絶感を日本のなか  
 感じたわけです。風景から家から道ひとつ見ても、自分の育った場所とはまったく  
 違う。その距離はたいへん強烈だった。ということは逆にいうと、向うにいたということは  
 、私の意識下のなかに何かを入れていたのです。)7)

그 당시 大連은 일본의 식민지이기는 하였으나 유년 시절을 大連에서 보낸 엔도에게 있어서 大連에서의 생활은 일본을 보는 또 다른 눈을 가지

7) 遠藤周作・佐藤泰正, 『人生の同伴者』, 新潮文庫, 1995, p.15

게 하는 장소였다. 또한, 10살까지 자란 大連은 일본과는 다른 기후와 습성, 풍토 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부로 두 곳의 차이점을 느꼈고 두 지방의 이질감을 막연하게나마 체득하게 한 곳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유년 시절부터 이미 내재된 <距離感>의 형태로서 훗날 그가 작가가 된 후, 그의 소설과 수필에서 발전, 심화된 모티프라 할 수 있겠다.

엔도는 부모의 이혼을 계기로 형과 어머니와 함께 1933년 일본의 지방 도시인 고베(神戸)로 귀향하게 된다. 그곳은 이모가 살고 있던 곳이었었는데 이모는 신앙심이 돈독한 가톨릭 신자로서 이혼의 실의에 빠져 있던 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하여 안정을 주고자 했다. 그리고 엔도의 어머니는 가톨릭 洗禮를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엔도도 어머니의 의지라는 他意아래 12살이 되던 1935년 ‘폴’(바울)이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로 他意的으로 세례를 받는 상황에 아무런 저항 없이 순응하였으나 실제로는 이질적이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고 훗날 회고하고 있다.

나는 예를 들어 시이나린조나, 미우라슈몽과 같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소년 시절 어머니의 명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자면 기독교는 나에게 있어서 성장기와 어머니로부터 입혀진 양복과 같은 것이었다.

(私はたとえば権名麟三氏や三浦朱門氏のように自分の手で基督教という信仰を選んだのではない。私は少年時代に母の言いつけで洗禮を受けたのである。いわば基督教は私にとって成長期と共に母親から着せられた洋服のようなものであった。)<sup>8)</sup>

어머니의 <명령>에 의해서 받게 된 세례는 엔도의 신앙 생활에 자연스럽게違和感과 排他的 감정을 가지게 만들었다. 세례를 받은 이듬해 신앙심이 좋아져서 예수회 사제가 이끄는 ‘沈黙會’에 출석하여 감동을 받고 스스로 새

---

8) 笠井秋生, 『遠藤周作論』, 双文出版社, 1987, p.7에서 재인용

벽 일찍 일어나 교회의 미사에 출석하였으며, 장래에 교회 司祭가 되어 볼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sup>9)</sup>. 그러나 이런 감정이 줄곧 일관된 것은 아니었다. 타의에 의한 깊은 違和感과 排他的 감정의 잔상은 두터운 신앙심마저 무너뜨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한 행위로서의 출석이 되어 버린다. 이러한 교회의 출석은 막연한 違和感을 느끼게 했다고 『인생의 동반자(人生の同伴者)』에서 말하고, 그만큼 교회와 엔도의 관계는 복잡 미묘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의 경우는 서적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소년 시절부터 가톨릭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요 그러나 미사에서든지, 신부님의 말씀 하나 하나에서도 <距離感>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 즈음 소년이었지만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기독교에 그러한 <距離感>을 가진다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距離感>이란 것이 아무래도 타다 남은 숯처럼 남아서 나 혼자만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라는 심정으로 고민했습니다. 그것이 점차 어머니에 대해 켄기는 심정으로 이어지는 惡循環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私のばあいは書物をとおしてだけじゃなくて、とにかく少年時代からキリスト教会へ行かされているわけでしょう。するとそのミサでも、神父さんの言うことでも、ひとつひとつ<距離感>があるわけです。そのころ少年ながら一所懸命ということもありまして、キリスト教にそういう<距離感>をもつということはよくないことであるとおもっていました。しかしその<距離感>がどうしても燻みたいにたまってしまって、私ひとりが教会のなかでこんなことを考えているんであろうかという気持ちに悩まされた。それがさらに母親に対するうしろめたさにつながるという悪循環をずっともっていました。)10)

위의 글에서 <距離感>이라는 용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 <距離感>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엔도가 말하는 <距離感>이란 동·서양에 대한 지리적인 <距離感>이기보다는 심리적, 내면적으로 느끼는 <距離感>으로서 違和感, 저항감의 의식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9) 笠井秋生, 玉置那雄 編, 『作品論 遠藤周作』, 双文社出版, 2000, p.322

10) 遠藤周作·佐藤泰正(1995), 전계서, p.44

자기 의지로 선택하지 않은 종교에 대한 반감에서 나온 違和感이 <距離感>으로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엔도가 소설가로서의 꿈을 꾸기도 전, 幼·少年 시절을 거쳐 靑少年期 시절을 보낼 동안 이러한 <距離感>이 엔도를 소설가가 되도록 만들었으며 이를 간과해서는 엔도 문학의 심연을 들여다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距離感>이 주제 의식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막연한 <距離感>이 동·서양에 관한 구체적인 <距離感>으로 그 실체를 나타낸 것은 그가 게이오(慶応)대학에 입학 한 무렵부터인데 엔도가 생활 하던 기숙사에 가톨릭 철학자인 요시미치요시히코(吉満義彦)가 사감으로 있었다. 요시미치요시히코의 권유로 엔도는 마리탱<sup>11)</sup>의 『예술론』을 읽는데 이때 일본인과 기독교라는 문제를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마리탱의 『예술론』에서 작가는 근대주의를 비판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중심이 된 중세로 돌아갈 것을 외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엔도는 일본인에게 있어서 중세라는 시대는 없으며 중세의 정신적 기조가 된 기독교 신앙은 더욱 없음을 자각하게 된다. 이로써 유년 시절 실체를 분명하게 자각할 수 없었던 <距離感>이 일본인에게 존재하지 않는 서양식의 철학적 사고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동·서양에 대한 사상적 <距離感>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된다. 또한 샤를르 드 보스의 『모리악<sup>12)</sup>과 가톨릭 작가의 문제』를 읽고 20

---

11) 자크 마리탱(Jacques Maritain 1882-1973) 프랑스의 철학자, 파리 출생 신(新)토머스주의 철학의 대표작의 한사람이다. 처음에 H.L.베르그송과 H.드리시 등의 '생(生)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으나, 1906년 가톨릭으로 개종하여 신토머스주의의 형이상학에 귀의하였다. 또한 유대계 부인과 결혼,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캐나다로 망명하였다. 戰後에는 파리4대학 교수, 프린스턴대학 객원교수로 있으면서, 휴머니즘과 민주주의에 관한 저술을 계속 발표하고, 가톨릭의 '통합적 휴머니즘'으로써 현대의 위기를 구제할 것을 주장했다. 주요저서로 『베르그송 철학』, 『예술과 스킨라 철학』, 『인식의 단계』 등이 있다.

12) 프랑소와 모리악(Francois Mauriac, 1885-1970) : 프랑스의 시인이자, 소설가

세기 프랑스 가톨릭 문학에 심취하게 된다. 이러한 프랑스 문학과, 프랑스 사상과의 만남은 엔도에게 ‘프랑스 가톨릭 문학의 연구’라는 거대한 연구과제를 부여했으며 대학 시절 내내 프랑스 가톨릭 문학을 탐독하는 계기로 된다. 대학을 졸업한 엔도는 가톨릭 장학생으로 프랑스 유학의 기회가 주어지고 프랑스에서 연구 테마가 <프랑스 현대 가톨릭 문학의 연구>가 된 것은 어린 시절에 가진 <距離感>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엔도에게 있어서 <距離感>의 발단은 大連에서의 異郷體驗이 토대가 되었으며 그 <距離感>은 자각되어지지 않은 무의식으로 남아 있다가 어머니로부터 타의적으로 받은 세례에 의해서 違和感과 排他的 감정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청년이 되어 요시미치요시히코의 영향에 의해서 철학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한 <동·서양의 距離感>으로 발전하게 된다.

## 2) 距離感과 갈등

막연한 <距離感>으로 인식되었던 주제는 엔도가 유학을 가게 됨으로써 한층 구체화되기에 이르렀다. 1950년 6월 엔도는 戰後 최초의 유학생으로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된다. 연구 테마는 게이오(慶応)대학 시절 관심을 가지고 읽었던 프랑소와 모리악과 조르주베르나노스 등 프랑스 현대 가톨릭 문학에 대한 것으로서 그의 나이 27세였다. 프랑스로 가는 배는 프랑스 국적의 마르세이유 호였다. 같이 프랑스로 유학을 떠난 동료 중에 비싼 2등

---

이자, 가톨릭 작가이다. 프랑스 서남부 보르도에서 출생, 경건한 어머니 아래서 자라났으며 1906년 파리 대학에 들어갔다. 1909년 첫 시 『합장(1909)』이 바레스에게 인정되어 문단에 데뷔하였다. 그의 작품 배경과 제재는 대부분 고향인 보르도 지방을 무대로 펼쳐졌으며, 개인과 가자어, 신앙과 육체의 갈등, 에고이즘과 종교의식의 대립 등을 주요 테마로 하였다. 아집과 탐욕, 육욕에 사로잡힌 인간의 내면을 분석하였으며 신이 없는 인간의 참상을 표현하였다. 대표작으로는 『나병환자의 키스』(1992), 『사막의 사랑』(1925), 『테레즈데게루』(1927) 등을 썼다. 1952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선실을 이용할 수 없어 4등 선실을 타야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엔도도 4등 선실을 함께 타게 되었다. 여기서 느낀 차별 의식과 모욕감을 『작가의 일기(作家の日記)』(1980)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6월18일(일)

인종차별, 자본주의적 계급제는 의연하게 존재한다.....(中略).....모든 것의 판단은 객실의 등급에 의해 판정된다. 어떠한 바보라도 1등 선실에 있기만 하면 그는 배 안에서 자신의 뜻대로 자존심을 채울 수 있다. 4등 선실의 승객들은 대신에 최대의 굴욕감을 맛보게 된다.

(6月18日(日))

人種差別、資本主義的階級制は依然として存在する。.....(中略).....すべての判断は室の等級によって判定される。どんな馬鹿でも一等船客でありさえすれば、彼等は船中における万福的自尊心を充たしうる。四等船客は代りに最大の屈辱を味わわされる。) 13)

일본인이 가질 수 없었던 서양식 사고를 가톨릭 문학에서 찾고자 했던 엔도는 3년간의 유학 생활에서 서양식 사고를 습득하며 지낼 수 있었겠지만 유학 생활은 생각과는 다른 것이었다. 오히려 프랑스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서구의 생활양식을 자신의 몸에 익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 문화까지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시기였다.

1년째는 뭔가를 알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대충 말도 통하게 되었고,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내가 유럽을 간단하게 이해 할 수 있다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째 이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나니, 하나의 단어, 한가지의 이미지라도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깊이의 농도가 한층 더해져서 눈앞에 산이 있어서 그 곳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고 계속 산이 연이어 보이게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2,3년의 유학으로 문명은 간단하게 습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문화라는 것은 사고 양식도 생활 양

13) 遠藤周作, 『作家の日記』, 講談社文芸文庫, 2001, p.17

식도 다른 우리들에게는 ‘알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알 수 없게 되었다’ 라고 하는 편이 당연합니다.

(1年目はわかったという感じなんです。多少言語も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し、友だちもできますし。自分がヨーロッパを簡単に理解できるような気がする。それで二年以降になりますと、もうちょっと勉強すると、ひとつの言葉、ひとつのイメージでもその奥がずうつとあるということに、すこし気がついてきます。そうすると、その奥にあるものの濃度がだんだん増してきて、目の前にポッコリ山があつて、そこをやつと越えるとまた大きな山があつて、ずうつと連山が見える、そういう感じになってくる。それはそうでしょう、二年や三年の留学で事実の文明ならそれは簡単に修得できるのかもしれませんが、文化というものは、思考様式も生活様式も違われわれがわかったということよりも、むしろわからなくなってきたというふうに感じるのが当然です。)14)

정신적 문화는 쉽게 자기화 하기 힘든 것으로 엔도는 느껴졌다. 현대 가톨릭 문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서구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문화의 기반은 기독교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된다.

이러한 정신적 문화의 違和感과 異質感은 『깊은 강(深い河)』에서도 나타나는데 오오츠는 엔도가 쓴 작품 가운데서 그려 왔던 나약한 모습을 지닌 상징적 인물로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생활하며 그 가운데서 서구인들의 사고 방식과 동양인인 자신이 가진 사고 방식의 차이로 괴로워한다. 또한 서양인의 기준으로 비춰진 神이 아니라 동양적인 사고 방식으로 神의 모습을 재인식 하고자 하는 청년이다. 프랑스와 인도의 이국 생활을 경험하는 인물로 神에 대한 사랑을 거리에 버려진 행려자들을 갠지스강으로 옮기는 고행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이 오오츠는 엔도의 분신이라 보아도 좋을 만큼 엔도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5년 가까운 이국 생활을 통해 유럽 사람들의 너무나도 명석하고 논리적인 사고 방식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만, 그 너무나도 명석하고 논리적인 것 때문에 동양 사람인 나에겐, 그들이 무언가 못 보

---

14) 遠藤周作・佐藤泰正(1995), 전계서, p.40

고 지나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中略).....그들의 위대한 구축력을 이해하기에는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부족했지만, 그보다 내 안에 있는 일본인적인 감각이 무엇보다도 유럽의 기독교에 대해 위화감을 느끼게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五年に近い異国の生活で、ヨーロッパの考え方はあまりに明晰で論理的だと、感服せざるをえませんでした。そのあまりに明晰で、あまりに論理的なために、東洋人のぼくには何かが見落されているように思え、従っていけなかったのです。....(中略). ....それはぼくが彼等の偉大な構築力を理解できるだけ頭がよくなく、不勉強のためですけれど、それ以上にぼくのなかの日本人的な感覚がヨーロッパの基督教に違和感を感じさせてしまったのです。)15)

오오츠가 서술한 문장처럼 엔도가 느꼈던 문화적, 생활 양식의 차이는 논리적인 사고 방식과 유럽인 특유의 <감각>이었던 것이었다. 유럽인의 명석함과 논리적인 사고방식은 일본인인 엔도의 동양인적 감각으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유럽인의 사고 저변에 있는 기독교적 사고 방식이었던 것이다.

엔도는 동양적인 사고의 출발점이 唯一神을 믿고 있는 기독교적 사고와 다른 汎神論的 사상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는 처녀 평론 『신들과 신(神々と神と)』(1947)에서 동양인이 가진 서양에 대한 <距離感>을 “우리들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汎神論的 혈액을 끊임없이 가톨릭 문학의 일신적 혈액에 맞서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16) 이라고 하는데서 동양적 사고를 汎神論的 이다 라고 뒷받침 할 수 있겠다. 더불어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는 것은 동양적 사고를 가진 엔도가, 唯一神論的 사상을 가진 프랑스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유학 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갈등을 불러 일으켰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汎神論이란 것은 우주를 하나의 전체로 보고 그것을 神으로 보는 관점

15) 遠藤周作, 『深い河』, 講談社文庫, 1996, p.190

16) この距離感とは、ぼく等が本能的にもっている汎神の血液をたえずカトリック文学の一神的血液をたえずカトリック文学の一神的血液に反抗させ、たたかわせると言う意味なのであります。  
遠藤周作, 『遠藤周作全集』 第10巻, 新潮社, 1975, p.20

으로서 만물을 포용하는 것이며 이에 반해서 唯一神論은 하나의 神만이 존재한다는 신앙 또는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신앙으로 범신론과는 다르게 하나의 神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기독교적 敎義를 학문적으로 체계화 한 스콜라 철학<sup>17)</sup>의 영향으로 신앙과 이성이 긴장 관계에 있으며 여러 가지 견해를 하나 하나의 논점에 대하여 긍정과 부정의 이분법적 사고 체계를 발전시키게 되었다. 이 스콜라 철학은 서구인들의 사고 관점을 二分法的으로 만들었고 만물을 포용하는 汎神論의 사고방식과는 매우 대비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혈액 속에 범신론의 감각을 지닌 엔도에게 기독교 문화권 안에 유학 생활을 했다는 것은 동·서양의 <距離感>을 불어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깊은 강(深い河)』의 오오츠 또한 서구의 스콜라 철학의 이분법적 사고 방식에 이질감과 <距離感>을 느끼게 되었는데, 동양인의 汎神論의 감각과 서양인의 唯一神論의 감각의 대립을 나타내는 대목을 神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도원의 선배들과 나눈 대화에서 발견할 수 있다.

「神이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 밖에 존재하므로 우러러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안에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감싸고, 나무를 감싸고 화초를 감싸는 아주 큰 생명입니다.」

「그것은 汎神論의 생각이 아닌가?」

그러면서 세 명은 스콜라 철학의 너무나도 명석한 논리를 펼쳐가며

#### 17) 스콜라 철학 (Scholasticism)

원래는 중세의 스콜라(교회 부속 학교라는 뜻)에 속한 학자들의 학술을 의미하였으나 그 뒤 11세기에서 15세기에 이르는 동안 체계화된 학술, 특히 신학과 철학을 말한다. 중세에 있어서는 교회의 교리가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여졌으나, 점차 이를 학술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여기에 그리스의 철학,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빌려 그리스도교 교리의 보다 깊은 뜻을 구명하려 하였다. 이렇게 하여 신학과 철학,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실현한 체계적 학문이 수립되었는데, 이것이 스콜라 철학이다.

나의 흐리멍덩한 사고력에 대한 결함을 추궁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만, 동양인인 나에게 그들처럼 무엇이든지 확실히 구별하거나 분별하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神とはあなたたちのように人間の外にあって仰ぎみるものではないと思います。それは人間のなかにあって、しかも人間を包み、樹を包み、草花をも包む、あの大きな命です。」

「それは汎神論的な考えかたじゃないか」

それから三人はスコラ哲学のあまりに明晰な論理を使って、ぼくのだらしない考え方の欠陥を追及しました。これはほんの一例ですけれど、でも東洋人のぼくには彼等のように何ごともはっきり区別したり分別したりできないのです)18)

위 문장에서 서양인들은 汎神論적인 동양인의 사고를 타문화의 사고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흐리멍덩한 사고 방식을 가진 동양인으로 격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은 서양인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구별되어지는 <선>과<악>의 문제가 동양인에게는 의식적으로 구별하기에 매우 힘든 것 인식되어져서 죄의식에 대한 무감각함으로 이어지게 된다.

황색인인 나에게 있어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들과 같은 죄의식과 허무 등과 같은 심각한 것, 사치 따위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피로감, 깊은 피로감뿐입니다. 나의 누린 피부처럼 탁하고, 축축하고, 무겁게 가라앉은 피로감뿐인 것입니다.

(黄色人のぼくには、繰り返していいますがあなたたちのような罪の意識や虚無などのような深刻なもの、大袈裟なものは全くないのです。あるのは、疲れだけ、ふかい疲れだけ。ぼくの黄ばんだ肌の色のように濁り、湿り、おもく沈んだ疲労だけなのです。)19)

엔도의 『노란 사람(黄色い人)』에서 묘사되어지고 있는 동양인의 죄의식

18) 遠藤周作(1996), 전게서, p.191

19) 遠藤周作, 『白い人・黄色い人』, 新潮文庫, 2000, p.91

은 서양인이 느끼는 죄의식과는 다른 것이다. 서양인의 죄의식은 기독교 문화에 영향을 받아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윤리적인 것이라면, 동양인의 죄의식은 육체와, 감성으로 느끼게 되는 하염없는 피로감과 같은 것이다.

문화적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엔도의 유학 생활은 기독교적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심한 이질감으로 點綴되었으며 동양인의 혈액 안에 지닌 汎神論的 사고로 인해서 <선>과 <악>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열등인인 자신을 철저하게 깨달음과 동시에 서구 문명에 대한 재인식의 시간을 보냈다.

엔도의 유학 생활은 1951년부터 폐결핵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고, 1952년 결핵이 재발이 되어 휴양하였으며 1953년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일본으로 귀국하게 되면서 유학 생활을 마감하게 되었다.

유학 생활 이후 엔도는 프랑스에서 느낀 <距離感>을 그의 소설에서 나타내었다. 초기 소설이었던 『아덴까지(アデンまで)』, 『하얀 사람(白い人)』, 『노란 사람(黄色い人)』에서 다루어진 중심 주제는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의 罪性和 肉의 문제를 통한 동·서양의 차이<sup>20)</sup>였는데 『아덴까지(アデンまで)』에서는 일본인 유학생이 프랑스 여학생에 대해서 가진 인종적 열등감을 작자 엔도가 기독교에 대해서 가진 <距離感>을 의미하고 있으며<sup>21)</sup> 자신의 황색 피부가 서로 대립되면서 백인에 대한 열등감으로 표현되어 있다. 『하얀 사람(白い人)』이라는 소설은 등장 인물이 동양인이 아니라 소설의 인물이 모두 백인이라는데 있어서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백인 사회만을 그린 소설이 동·서양의 <距離感>을 어떻게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카사이아끼후(笠井秋生)는 서양의 唯一神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닌, 神이 있다는 것<sup>22)</sup>을 전제로 하고 그 神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20) 笠井秋生(1987), 전계서, p.37

21) 상계서, p62

22) 상계서, p.71

있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노란 사람(黄色い人)』에서는 <신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황색인의 삶을 다룬 것으로 神의 존재를 느끼지 못함으로 <선>·<악>의 구별을 하지 못하는 동양인적 정서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유학 이후 엔도의 前期작품에서는 유학 생활에서 느낀 동·서양의 구체화된 <距離感>을 작품으로 표현하였으며 이후 中期작품에서는 일본인의 풍토 안에서 神의 모습을 찾기 위한 시도가 계속된다. 또한 末期작품에 이르러서는 죄의 문제를 다룬 작품을 내어놓음으로 엔도가 가진 <距離感>과 갈등의 문제는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 3) 距離感의 해소

中期와 末期작품의 특징은 앞에서 밝혔지만 中期에는 일본 풍토 안에서 예수의 모습을 찾고자 하였으며, 末期 문학에서는 초기 문학의 주제를 다시 부각시킴과 동시에 <罪>의 문제에 그 초점을 두었다. 그런 의미에서 엔도 후기 문학의 대표작인 『깊은 강(深い河)』에서는 엔도 문학에 있어서 대 주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동·서양의 <距離感>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는 유·소년 시절과 유학 시절을 통해 느낀 <距離感>의 해소와 동시에 엔도 자신이 느꼈던 <동·서양의 距離感> 문제의 탈출구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距離感>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써 『깊은 강(深い河)』의 무대를 인도라는 새로운 장소에 두고 <距離感>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인도만이 지니는 특이성과 다양성에 의탁하여 동·서양의 긴장감을 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인도는 고대 문명의 4대 발생지 중 하나인 인더스 문명이 발생한 나라로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시크교<sup>23)</sup> 등의 다양한 종교가 혼재하며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며 간디와 테레사 수녀<sup>24)</sup>가 살았던 聖人の 나라로 연상된다.

엔도가 인도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은 30代の 일로, 『깊은 강(深い河)』의 집필을 위해 떠났던 1990년의 여행을 포함하여 총 4번의 여행을 하였는데 질서정연한 유럽과는 다른 복잡함과 혼돈이 가득한 곳이라는 점을 인도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엔도는 인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서양인의 사고 방식은 사물을 논리적, 이원적으로 대립적으로 취급하지요, 제가 젊었을 때는 종전 직후로, 그런 합리적인 사고 방식이 옳다라고 철저히 배웠습니다. 그러나 40대 부터인가 그러한 합리적인 사고방식에서 점차 벗어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말한다는 발상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라고..... 그래서 인도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무엇이든지 혼돈으로 공존하고 있는 것 같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전부 몽땅그러서 수용할 것 같은 토지에 마음이 끌렸는지도 모르겠군요

(西洋人のものの考え方は、物事を論理的に、二元論的に、対立的につかまえますね。私が若い頃は終戦直後で、そういう合理的な考え方が正しいのだと徹底的に教えられた。でもね、四十代ぐらいからかな、そういう合理的な考え方から、どんどん

---

23) 시크교(Sikhism) : 이슬람적 요소와 힌두교적 요소가 결합된 인도 종교. 15세기말에 펀자브에서 나나크가 창설했다. 교리는 펀자브어로 간단 명료하게 표현되었다. 신은 오직 하나뿐이며 우상이나 신상을 만들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의 영혼이 윤회에 의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태어남을 거쳐 궁극적으로 신과 합일될 때까지 신의 명령에 따르는 선한 생활과 기도, 특히 신의 이름을 되풀이하여 부름으로써 이것을 통해 신을 섬긴다.

24) 테레사(Mother Teresa :1910-1997) 가톨릭교 수녀. 마케도니아 스코플레 출생, 1928년 아일랜드의 로레토수녀회에 들어간 뒤 자원해서 인도로 건너갔다. 1946년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생을 바칠 것>을 결심하였다.

1948년 인도 국적을 얻고, 로레토수도회를 떠나 의료 지식을 습득한 뒤 켈커타의 빈민가에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의 집>, <고아의 집>, <나병 구제 활동>등의 시설을 인도 각지에 개설하였으며 세계각지로 시설을 넓혀 활동하였다.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抜け落ちていく大事なことがあることに気づき始めたんです。論理的に筋道をたてるという発想が、はたして本当に正しいことなのだろうかと.....。

それで、インドみたいにわけのわからない(笑)、何もかもが混沌として共存しているような、善いことも悪いことも全部ひっくるめて受容するような土地に、心惹かれたのかも(しませんね。)25)

엔도는 프랑스 유학 기간 내내 서양의 二分法的인 사고 방식과 기독교적인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혼돈과 다양함이 공존하는 사회인 인도를 작품의 무대로 삼고 동·서양의 사상적 <距離感>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인도의 다양성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인도의 다양성의 원인을 『인도의 길』26)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 지리적인 이유로 인도는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여러 나라에 둘러싸여서 많은 문화를 접할 수 있으며 북쪽은 히말라야산맥과, 大地로 이루어진 중부, 사막 지역인 남부가 서로 다른 기후를 가지고 있다. 둘째는 100개 이상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로 다양한 언어는 문화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으며 북부와 남부 인도가 커다란 문화적 차이를 보인다. 셋째는 이국적인 장소로서의 인도는 이주와 정복을 통한 외국의 영향이 있었다. 인도는 200년 동안 유럽인 영국의 식민지로 서구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동서양의 무역 통로와 실크로드로서 항시 개방되었던 지역이었다. 또한 다양한 종족이 어울려 살면서 문화적인 차이점을 표출하고, 다른 이념들과 삶의 방식들이 상호 교섭함으로 영향을 주어 다양성을 지닌 역동적인 사회가 된 것이다.

지리적으로 완전한 동양도 아닌, 서양도 아닌 그 중간적 위치에 존재하면서 여러 나라와 국경을 접하는 인도는 프랑스 유학의 경험으로 인해 느꼈던 지리적인 <距離感>을 상쇄시키기에 적절한 곳이었다. 그리고 모든 문

25) 遠藤周作, 『深い河をさぐる』, 文春文庫, 1997, p.13

26) 존.M.콜러, (허우성 역), 『인도의 길』, 도서출판 세계사, 1995

화가 혼재해 있고 다양한 사고를 받아들일 포용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요소들은 인도가 『깊은 강(深い河)』의 무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엔도는 『黄色い人(노란 사람)』에서

듀랑씨나 당신 같은 백인은 인생에 있어서 비극과 희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デュランさんやあなたたちの白人は人生に悲劇や喜劇を創れる。けれどもぼくには劇は存在しないのです)<sup>27)</sup>

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劇은 백인들의 이분법적인 사고 관념과 문화에서 나온 것으로,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는 흑·백 논리와 같은 것으로 희극 아니면 비극을 만들어 내는 서구에 비해서 일본은 범선론적이고 포괄적인 사고 방식으로 인해 劇的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엔도는 이러한 劇을 소화시킬 수 있는 문화를 지닌 인도를 소설의 무대로 함과 동시에 무대 안에 일본인을 주인공으로 투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내적인 갈등과 더불어 일본에서 풀지 못한 영혼의 문제를 인도 안에서 풀게 되는 것이다.

엔도가 인도를 무대로 택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인도가 정서적 <距離感>의 완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인도는 지역적으로도 일본과, 유럽의 중간적 위치이지만 더불어 정신적인 <距離感> 또한 그 중간적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식민지로서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인도가 가진 고유 문화뿐만이 아니라 200년의 식민지 문화로 인해서 받은 서구의 문화가 혼재되어 있고. 그들의 사고가 개방적인데 있어서 엔도는 인도를 새로운 <距離感.>의 탈출구로 모색하기에 이른 것이다.

---

27) 遠藤周作(2000), 전계서, p.90

엔도는 이렇게 다양성이 존재하며 모든 영역의 문화를 수용하고, 포용하는 인도를 일본과 유럽과는 차원이 다른 <별세계>로 간주하고 『깊은 강(深い河)』에서 일본인 인도 여행 가이드인 에나미의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인도를 불결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진작에 즐거운 유럽 단체 여행이나 택하셨어야 해요. 하지만 일단 인도에 오신 이상은 ..... 인도는 유럽이나 일본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별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들이 잃어 버린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下略)」

(「印度を不潔だと思うなら、ヨーロッパの楽しいツアーをお選びになるべきだったんです。印度を御旅行になった以上は.....ヨーロッパや日本とまったく違った、まったく次元を異にした別世界に入ってください。いや、違いました。言いなします。我々は忘れていた別の世界に今から入っていくんです。そのおつもりで印度を旅してほしいんです.....(下略)」)<sup>28)</sup>

에나미의 말이 시사하고 있는 <별세계>는 근대 이후부터 논리적이고 이원론적인 사고를 억지로 강요당했던 일본의 정서로부터 탈출을 의미하고 있으며 또한 동양 대 서양으로만 분리하여 생각했던 의식을 제 3의 장소에서 융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눈으로만 보던 동·서양의 세계를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눈으로도 관찰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도라는 지역을 통해서 인식하게 된다.

또한 작품 안에서도 인물들이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인도에 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작가가 인도의 다양성을 조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기와 같이 중요한 아내를 갑자기 병으로 잃어 버린 이소베는 아내가 마지막 남긴 유언을 들으면서 전생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된다. 아내의 마지막 말대로 이소베는 아내가 환생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환생

---

28) 遠藤周作(1996), 전계서, p.175

한 아내를 찾기 위해 환생의 나라인 인도에 찾아오게 된다. 이 환생의 나라라는 것은 힌두교의 윤회 사상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인도가 가진 힌두교의 사상을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 누마다는 동물을 소재로 하는 동화를 쓰는 동화 작가로 우연하게 얻게 된 자신의 새가 자신의 고민과 답답한 마음을 달래 주는 말동무가 되어 주었고 자신의 위로자로 존재했던 구관조가 자신이 수술 도중에 죽은걸 알게 되었다. 그러나 누마다는 새가 평소에 자신을 위로해 주었던 것과 같이 생명이 위급할 때 또한 자신을 대신해서 죽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인도의 자연이 동물을 방생하기에 좋은 곳임을 알게 된 누마다는 새를 방생하기 위해서 인도로 향하게 된다.

또한 기쿠치는 버마(현재의 미얀마) 정글에서 싸웠을 때 혹독한 시련과 배고픔 그리고 병고로 인해서 人肉을 먹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자신의 은인인 츠카다가 人肉을 먹었다는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하며 죽어 갔던 것과 전우들이 전쟁으로 인해 죽었던 사람을 위해서 法要를 지내러 인도로 가게 된다. 기쿠치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해탈의 경지를 엿보게 함으로 불교가 태동한 나라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미츠코는 자신 안에 사랑이란 것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위선적이고 허위로 가득 찬 일상 생활에서 공허감을 느낀다. 미츠코는 우연한 기회에 오오츠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프랑스를 거쳐 인도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래서 미츠코는 자신 안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찾으러 인도로 떠나게 된다. 한때 미츠코는 오오츠를 희롱하여 神과, 자신 중 하나를 선택하기를 시험했는데 이때 오오츠가 미츠코를 선택하게 되자 오히려 오오츠를 배신하게 된다. 이 사건을 통해 오오츠는 다시 神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사건을 경험한 미츠코는 자신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神에게로

돌아간 오오츠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다. 이러한 일로 미츠코는 오오츠를 만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도로 향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미츠코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상과 철학이란 무엇인지 알게 되며 그것을 가르쳐 주는 곳이 인도란 곳을 깨닫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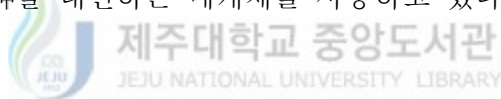
## 2. 神과의 距離感 해소 방안

엔도의 주제인 <일본에 있어서 唯一神의 인식 문제>는 <동·서양의 距離感>의 문제와 따로 분리시켜 생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두 개처럼 보이나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그것은 <동·서양의 距離感>이라는 주제 안에서 이미 唯一神論的 서구 감각과, 汎神論的인 동양인의 감각이 대립하고 있었으며, 대립의 원인은 唯一神이라는 神의 인식 문제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엔도는 汎神論的인 감각을 필연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었던 日本人으로서 서구 사회를 경험한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日本人이 가진 감성을 기반으로 한 神의 문제를 재정립해야 할 의무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처럼 神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 문제는 唯一神論과 汎神論의 두 입장에 대한 엔도의 갈등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그의 處女作 『신들과 신(神々と神と)』에서 그것이 주제 의식으로 나타난 것은 당시 엔도가 직면한 문제의식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제는 엔도가 일본인이며 동시에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갈등이었으며 이는 汎神論的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이 이해 할 수 있는 神의 이미지를 창출하게 했던 원동력이 된 것이다.

엔도에게 있어서 神의 이미지 재창출 과정은 타카노토시미(高野斗志美)의 말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침묵(沈黙)』에서는 기독교 문명을 가진

유럽과 일본이라는 반 기독교 문명의 대립 속에 기독교 신자로서 일본인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 되었고 『사무라이(侍)』(1980)에서는 일본인에게 있어서 예수의 수용은 가능한가의 문제로 옮겨졌다. 그 중간적인 입장을 가진 『사해의 언저리(死海のほとり)』(1973)는 예수를 인간의 영원한 <동반자>로서 이미지화 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예수의 생애(イエスの生涯)』(1973)등은 일본인에게도 친근한 이미지의 예수를 그렸다<sup>29)</sup>. 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엔도가 神을 일본인의 감성에 맞도록 이미지화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깊은 강(深い河)』에서도 엔도는 唯一神의 존재를 일본인의 감성에 맞도록 추구하였으며 동시에 서구 가톨릭의 唯一神과 동양의 汎神論的 감성을 지닌 神과의 <距離感> 해소를 돕기 위해서 직접적인 唯一神을 나타내기보다는 唯一神을 대신하는 매개체를 사용하고 있다.



## 1) 媒介體

### ① 갠지스강

日本인들이 느끼는 자연은 과거와 미래가 없는 영속성을 지닌 것으로 자연은 곧 神이라는 이미지를 가지는데<sup>30)</sup>, 자연=神의 속성을 느끼고 있는 일본인에게 神을 설명하기 위해 엔도는 갠지스 강을 神의 매개체 사용하기에 이른다.

갠지스강은 神이 만든 자연으로서, 인간과 더불어 귀한 생명의 가치를

29) 高野斗志美, 「『遠藤文学におけるイエス像』」, 『国文学解釈と鑑賞』51卷10号, 至文堂, 1986.10, p.47

30) 상계서, p.47

지니며 자연에 대한 敬畏감을 가짐으로써 神의 매개체로 사용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엔도가 갠지스강을 神의 매개체로 사용한 이유는 그 강의 성스러움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神이 가지는 성스러움을 자연인 갠지스강에서 찾고 있는데 『깊은 강(深い河)』에서는 성스러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오후의 태양을 반사시키며, 넓은 강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흐르고 있다. 수면은 햇빛으로 흐리고, 강물은 넘칠 듯이 풍부하고 깊어서 강바닥은 보이지 않았다. 가트에는 아직 사람들과 장사꾼들이 남아 있었다 멀리 강 위로 무언가 햇빛 부유물이 떠내려오는 속도로 물살의 빠르기를 알 수 있었다. 작게 보이던 부유물이 점점 다가왔다. 그것은 물에 불은 개의 시체였다. 누구 하나 그것에 주목하는 이는 없었다. 이 성스러운 강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안아서 나른다.」

(「午後の陽を反射させ、広い河はゆるやかな曲線を描き、流れている。水面は灰色に濁り、水量は豊かで河床は見えない。ガートにまだ人や物売りが残っている。流れの早さは遠く川面に浮んだ何か灰色の浮遊物の移動でわかった。その小さく見える浮遊物が次第に近づくと、ふくれあがった灰色の犬の死体だった。だが誰一人としてそれに注目する者はいない。この聖なる河は、人間だけではなく、生きるものすべてを包みこんで運んでいく。」)<sup>31)</sup>

갠지스강은 인도 국토 면적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커다란 강으로 5억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인도의 젖줄이다. 이 갠지스 강은 힌두교도들이 성스러운 곳으로 숭배하는 강이며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을 키우고 수많은 사람을 기르는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어머니 갠지스’라는 이름으로 숭상되고 있다.

서구 기독교에서 神의 모습은 엄하게 노하는 모습을 가진 남성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농경 민족인 일본인이 그리는 神의 모습은 자애로운 어머니

---

31) 遠藤周作(1996), 전계서, p.232

의 모습으로 성스러움을 가진 神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어머니의 풍요함은 동양적인 정서를 가진 엔도가 느꼈던 神의 모습이다. 위의 문장에서도 부드럽고 넓은 강의 움직임과 풍부한 강의 수량은 풍요로움의 모습을 나타내는 여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러한 모습이 갠지스강에 녹아 들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재미가 아닙니다. 성스럽습니다. 금빛의 햇빛이 어둠을 가르는 순간, 약속이나 한 듯이 이 거리에 모여든 순례자들이 가트로 몰려갑니다. 그들은 앞을 다투어 이 어머니의 강에 몸을 담급니다. 이 어머니의 강은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받아들입니다. 성스러움이란 의미는 이러한 것입니다.」

(「面白いものじゃありません。聖なるものです。金色の光が闇を割るのを合図のようにして、この街に集まってきた巡礼客たちが、数あるガートに集まってきま。彼等は争って母なる河に身をひたす。母なる河は生ける者も死せる者も受け入れます。聖なるという意味はそういうことです。」)<sup>32)</sup>

또한 위의 문장처럼 ‘어머니 갠지스’는 살아 있는 존재와 더불어 죽어서 쓸모 없게 된 존재에 대해서도 포용력 있게 받아들인다. 이런 모습은 어머니의 강에 자신의 몸을 담그는 모습을 통해서 포용력을 느낄 수 있다.

포근하고 따뜻한 어머니의 품은 인간의 내면세계에 있던 괴로움과 비밀들을 고백하게 하는 告解所의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人肉을 먹은 괴로움 때문에 죽게 된 친구의 아픔을 기쿠치가 미츠코에게 털어놓는 장면에서 나타난다.

미츠코는 마니카르니카 가트를 바라보며 홀로 이야기하는 것 같이 기쿠치의 말을 들었다. 사람에게는 가슴에 묻어 두었던 비밀을 털어놓고 싶은 때와 장소가 있는 것이다. 기쿠치에겐 그것이 지금이며 갠지스 강이었다. 마니카르니카 가트에서는 흰 연기가 피어올라 수면

---

32) 상계서, p.229



위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 연기는 인생의 모든 것을 끝낸 이들을 태우는 연기였다. (중략)

「면목이 없습니다. 왜 말하지 않으면 안되었는지, 또한 지금 이 자리에서 털어놓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갠지스 강 탓일 거예요 이 강에 인간의 어떤 것도 감싸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뭔가가 있어 보여요」

(美津子は眼をマニカルニカ・ガートの方にむけてひとり言のような木口の話聞いた。人には心に溜めつづけた秘密を洩らしたくなる場所と時とがあるものだ。木口にとってそれが今であり、ガンジス河のほりだった。マニカルニカ・ガートでは白い煙が川面に流れ、白い煙は人生をすべて終えた者たちを焼いている。(中略)

「申しわけない。なぜ言うてはならぬことを今うち明けたのか、自分でもよくわかりませんが」

「ひょっとすると、ガンジス河のせいですわ。この河は人間のどんなことでも包みこみ...  
...わたくしたちをそんな気にさせますもの」<sup>33)</sup>

한편 갠지스강의 포용력은 미츠코에게도 반향을 일으켜 주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랑인 척 행해 왔던 미츠코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며, 미츠코 자신도 갠지스강의 주변인에서 강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통해 강의 포용력, 사랑의 포용력을 깨닫게 된다.

눈길이 닿는 저편, 완만히 흘러가는 강물 위에 햇살이 빛나는 정경이 마치 영원 그 자체인 것 만 같았다.

「그래도 난 알아, 인간의 강이란 것을. 이 강이 흘러가는 저편에 무엇이 있을까 아직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겨우 지난날의 많은 잘못을 통해서 나 자신이 무엇을 원했던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중략)

미츠코는 어느새 마음속으로 기도하듯 말하고 있었다.

「그 사람들을 감싸 안고 강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강, 인

---

33) 상계서, pp.322-323

간의 깊은 강, 그 깊은 강의 비애. 그 속에 저도 섞여 있습니다.」

(視線の向うゆるやかに河がまがり、そこは光がきらめき、永遠そのものようだった。)

「でもわたくしは、人間河のあることを知ったわ。その河の流れる向うに何があるかまだ知らないけど。でもやっと過去の多くの過ちを通して、自分が何を癒しかったのか、少しだけわかったような気がする。」

(中略)

美津子の心の口調はいつの間にか祈りの調子に変わっている。

「その人たちを包んで河が流れていることです。人間の河。人間の深い河の悲しみ。そのなかにわたくしもまじっています」<sup>34)</sup>

더불어 갠지스강은 모든 사람과 사물들을 공평하게 받아들이는데 이는 오오즈가 믿고 있는 예수(양파)<sup>35)</sup>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갠지스 강도 차별 없이 사람과, 사물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느끼며 갠지스 강과 예수를 비교하여 神의 모습을 나타낸다.

「갠지스 강을 볼 때마다 난 양파를 생각합니다. 갠지스 강은 썩어 문드러진 손을 내밀어 구걸하던 소녀도, 살해당한 간디 수상도 똑같이 마다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를 모두어 흘러 보냅니다. 양파가 말한 사랑의 강은 어떤 추한 인간도 어떤 더러운 인간도 거부하지 않고 거두어 흘러 보냅니다.」

(「ガンジス河を見るたび、ぼくは玉ねぎを考えます。ガンジス河は指の腐った手を差し出す物乞いの女も殺されたガンジー首相も同じように拒まず一人一人の灰のみこんで流れていきます。玉ねぎという愛の河はどんな醜い人間もどんなよごれた人間もすべて拒まず受け入れて流れます」<sup>36)</sup>

이렇듯 갠지스 강은 어머니와 같이 풍요로우며 모든 인간과 사물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고, 비밀과 죄를 고백하는 장소로서 역할도 한다. 또한 갠

34) 상계서, p.342

35) 오오즈는 神을 다양한 이름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고 예수를 ‘양파’라고 작품 안에서 부르고 있다.

36) 상계서, pp.302-303

지스강은 환생의 강으로써의 역할도 하는데 갠지스 강에 들어가서 죄를 씻으면 來世에는 더욱 좋은 환경에 태어난다고 힌두교 인들은 믿고 있다. 즉 이것은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還生함으로서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의 메타포로서 강의 의미를 추측 해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역할로써의 갠지스강을 단순히 힌두교의 성지로서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이른바 復活의 개념으로 중첩시킴으로 갠지스강이 神과의 <距離感>을 좁히는데 매개물이 되었다.

이렇게 엔도는 갠지스 강을 통해서 神의 성스러움과 포용력, 그리고 기독교적 교리인 부활의 모습을 인도의 갠지스 강을 통해서 재창조된 神의 모습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 ② 動物



엔도가 동물을 對話者로 인식하고 자신의 아픔을 나누는 동반자적 聽者의 입장을 부여하는 소설은 『깊은 강(深い河)』뿐만이 아니라 『사십세의 남자(四十歳の男)』(1964)에서도 그려져 있다.

엔도는 大連의 유년 시절부터 남달리 고독감을 느끼며, 새와 개를 사랑했는데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입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집에서 기르던 개에게서 위로를 받곤 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개의 눈빛에서 사랑을 느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후에 자신의 아픔을 달래 주던 그들의 눈빛에서 예수의 눈빛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다.<sup>37)</sup>

그렇다면 왜 엔도는 동물에게서 예수의 눈빛을 찾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엔도는 예수의 모습을 정신적인 교감을 나누며 나약한 자를 돕고, 아픔을 이해해 주는 동반자적 모습으로 예수로 형상화하는데 이렇게 자신의

37) 遠藤周作·佐藤泰正(1995), 전계서, pp.16-17

어려운 일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純眞無垢한 눈을 가진 동물에게서 예수에게서 느낀 동반자의 이미지를 느끼고 이를 神의 매개체로 하고 있는 것이다.

『깊은 강(深い河)』에서 누마다는 엔도의 유년 시절의 추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동화 작가이다. 어린 시절 누마다는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을 구로(クロ)라는 개로 생각하였으며 이 개는 어린 누마다에게 있어서 슬픔을 이해하는 동반자 역할을 하였다.

구로는 동물이 인간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그에게 가르쳐 준 개였다. 그리고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슬픔을 이해해 주는 동반자 일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었다.

(クロは動物が人間と話を交せることを彼にはじめて教えてくれた最初の犬だった。いや、話を交すだけでなく、哀しみを理解してくれる同伴者であることもわかせてくれた。)38)

또한 개와 더불어 새를 통해서도 神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깊은 강(深い河)』에서 동화 작가인 누마다는 피에로라는 이름을 가진 새 한 마리를 조류 가게에서 받게 된다. 이 새는 아프리카에서 잡힌 새로 누마다에게 부부끼리 나눌 수 없는 고독과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었으며 위로자가 되어 주었다. 누마다는 갑작스런 결핵의 再發로 인해서 입원을 하게 되었고 피에로를 아무도 돌봐 줄 사람이 없게 되자 조류 가게로 돌려 보내지게 되었다. 그러나 누마다는 자신의 고독을 나누고 위로자가 되었던 새를 그리워하게 된다.

지금쯤 그 새는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가능하다면 다시 그 코빨소새와 병실에서 밤을 보내고 싶었다. 그는 이미 의사나 간호사나 아내 앞에서 건강한 척 하는 것도 지쳐 버렸다. 예나 지금이나

---

38) 遠藤周作(1996), 전게서, p.119

마음이 통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었다. 그래서 코뿔소새가 더욱 그리운 것이었다. 루오가 그린 불쌍하나 재미있어 보이는 피에로 같은.....

(今頃、あの鳥、どうしているだろうかと思った。できればふたたびあの犀鳥と病室で夜を過したかった。彼はもう医者や看護婦や妻の前で元気を装うことに疲れ、昔と同じように心の通いあえる相手として人間ではなく犀鳥が欲しかったのだ。ルオーの描いたようなみじめで滑稽なピエロを.....。)39)

즉 누마다에게 있어서 동반자는 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고독을 나눌 수 있는 새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새의 裏面에는 神의 모습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누마다는 병실의 불을 끄고 누워, 살아오면서 정말로 대화를 해 온 것은 결국 개나 새 뿐이었다고 새삼스럽게 생각했다. 神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일 인간이 진정으로 모든 걸 말할 수 있는 상대가 神이라고 한다면, 누마다에게는 神은 때로는 구로가 되기도 했고 코뿔소새가 되기도 했고 구관조가 되기도 했다.

(沼田は病院の灯を消し、人生のなかで本当に対話してきたのは、結局、犬や鳥とだけだったような気がした。神が何かわからなかったが、もし人間が本心で語るのが神とするならば、それは沼田にとって、その都度、クロだったり、犀鳥だったり、この九官鳥だった。)40)

즉 누마다에게 있어서 神의 모습은, 인간의 진심을 솔직히 이야기 할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했으며 그것은 동시에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물이었던 것이다.

엔도는 神의 모습을 동물의 눈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는 만물을 포용하는 汎神論的 사고를 지닌 동양인에게 있어서, 동물 또한 神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과 인간이 가진 삶의 고독감과 어려움을 동물도 충분히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神의 매개를 동물에 이입시

---

39) 상계서, p.127

40) 상계서, pp.130-131

켜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겠다.

### ③ 弱者

엔도의 작품 안에서 神의 이미지는 철저한 가부장제의 권위주의적 이미지가 아니다. 오히려 부드러우며 포용력을 지닌 자애롭고 모성적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것은 서구의 神觀과 일본인의 神觀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어머니의 포용력은 자녀들의 장점만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점과 상처를 감싸 안는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한 단점과 상처들은 强者들의 속성이 아니라 약자가 지니는 약자의 속성으로 인식이 되는데 엔도가 神과의 <距離感>.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자가 아닌 <약자>를 매개로 하여 그 <距離感>.을 해소시키는 이유는 神의 '사랑'이 강자에게만 주어지는 일종의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부여되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엔도가 그리는 예수의 모습은 同伴者의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동반자의 모습 안에 무력한 예수의 이미지를 감추고 있는데<sup>41)</sup> 그런 모습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모습도 아니었으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오히려 神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위용조차 가지지 못한 무력한 예수<sup>42)</sup>였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고 강한 神의 모습이 아니라 나약한 인간의 입장에 서서 인간을 위로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즉 무력함으로 인해서 <약자>를 인식하며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예수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엔도는 이러한 <약자>의 모습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

41) 高野斗志美(1986), 전계서, p.49

42) 武田友寿, 『遠藤周作の文学』, 聖文舎, 1975 p.74

그의 大談集인 『인생의 동반자(人生の同伴者)』에서 나타난다.

나에게 있어서 약자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나에게서는 약자의 의미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침묵』에 나오는 기치지로와 같은 비겁한 자이고, 성서의 「이사야서」에서 나옴직한 무구하다 못해 괴롭힘을 당하는 약자입니다.

(私のなかに弱者というものが、たいへん大きな位置を占めます。私には弱者の意味がふたつあって、ひとつは『沈黙』のなかのキチジローみたいな卑怯者。それから「イザヤ書」なんかに出てくるような無垢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いじめられているような弱者。)43)

위에서 말하는 약자의 모습 중에서도 『깊은 강(深い河)』에서는 純眞無垢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약자>의 모습이 오오츠를 통해 나타난다.

오오츠는 언제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버림받는 모습으로 소설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버림받음>의 의미를 엔도는 버림받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존재44)라고 하고 있다.

오오츠는 보는 것만으로도 놀려 주고 싶어지는 타입의 대학생으로서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촌스러운 외모와 어눌한 말씨를 지녔으며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받고 자란 고지식한 철학과 학생이었다. 순진하고 어리숙한 오오츠는 미츠코에게 희롱을 당하게 되는데 미츠코가 하는 장난을 진정한 사랑으로 알고 받아들임으로써 시련의 아픔을 겪게 된다. 오오츠는 이러한 버림받은 자의 아픔을 통해서 인간에게 배반당하고 버림받는 예수의 모습을 이해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버려진 <약자>일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오오츠가 신부가 되기 위해 프랑스에서 머물고 있을 때 마침 신희 여행을 온 미츠코를 만나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한다 이 대화 속에서 오오

43) 遠藤周作・佐藤泰正(1995), 전게서, p.17

44) 遠藤周作・加賀乙彦, 「最新作『深い河』」, 『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89卷10号, 学灯舎, 1993.9, P.9

츠가 <약자>일반을 이해하는 예수에 대한 체험을 찾을 수 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나루세<sup>45)</sup>씨에게 버림받고 온통 상처투성이로..... 갈 곳도 없고 어떻게 할지 몰랐고..... 아무런 해결 방법은 없고, 그래서 그 구루텔하임에 들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저는 들었습니다.」

「들었다구요? 뭘?」

「<오렴> 하는 목소리를. <이리 오렴. 나도 너와 같이 버림받았다. 그러나 나만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하는 목소리를」

(「すみませんでも本当にそうなんです。ぼくは聞いたんです。成瀬さんに棄てられて、ぼろぼろになって.....行くところもなく、どうして良いか、わからなくて。仕方なくまたあのクルトル・ハイムに入って跪いていた間、ぼくは聞いたんです。」

「聞いた?.....何を?」

「おいで、という声を。おいで、私はお前と同じように捨てられた。だから私だけは決して、お前を棄てない、という声を」<sup>46)</sup>

또한 오오츠는 미츠크에게서 버림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프랑스에 있을 때 오오츠의 신앙이 이단적인 경향으로 인하여서 수도회가 신부가 되기에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수도회에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데, 이는 오오츠가 서구 기독교적 사고에 의해서 일반화되어 왔던 神의 모습을 부정하고 일본인의 감성으로 찾은 神의 모습을 서양인들에게 관철시키고자 함으로써 그들에 의해 버려졌던 것이다. 神을 인지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은 ‘기독교적 사고’라고 일컬어지는 强者의 사고 원리와는 다른 <약자>의 사고 원리였던 것이다.

그러나 작가 엔도는 오오츠가 미츠크와 서양의 기독교에서 버려짐을 당하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强者에게서는 얻을 수 없는 또 다른 神의 사랑을 재정립하게 된다.

45) 나루세는 미츠크가 결혼하면서 얻게 된 또 다른 이름이다

46) 遠藤周作(1996), 전계서, p.101



서양의 수도회에서 버림을 받은 오오츠는 인도로 오게 되고 힌두교도들이 묵는 아슈람에 들어가게 된다. 오오츠는 버림받은 계층인 아웃카스트들을 갠지스 강가의 화장터로 옮기는 일들을 하며 지내게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 버려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슬픔을 이해하게 되게 된다. 즉 버림받은 사람이 버려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하여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골고다 언덕을 오른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요 만약 이곳에 양파가 오셨다면, 그 분이야 말로 길에 쓰러져 있는 이들을 등에 업고 화장터로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생전에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옮기셨던 것과 같이」

(「そうでした、玉ねぎがこの町に寄られたら、彼こそ行き倒れを背中に背負って火葬場に行かれたと思うんです。ちょうど生きている時、彼が十字架を背にのせて運んだように」)<sup>47)</sup>

또한 汎神論적인 감수성 때문에 서구 가톨릭 교단에 의해서 버림받은 오오츠는 汎神論的 감각에 알맞게, 모든 神 가운데서 唯一神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이해하고 일본인에게 와 닿는 神의 개념을 재정립하게 된다.

#### ④ 他宗教-힌두교의 女神

엔도는 神에 대한 모습을 嚴父의 모습을 가진 神이 아니라 嚴父의 이미지를 상쇄시킬 수 있는 자애롭고 모성적인 포용력을 가진 神의 모습으로 추구하고자 했다. 그의 중기 작품인 『어머니 되시는 분(母なるもの)』(1969)에서도 일본에 전해진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음성화되면서 가톨릭의 성모 마리아가 <納戸神>로 일본인에게 變容된 것을 소설화 한 것을 보면 엔도에게 있어서 神은 모성적인 존재임을 알 수 있다.

47) 상계서, p.300

엔도가 이렇게 神을 母性化시킨 이유는 유년 시절의 어머니의 자애로움과 따스함을 매개로 神의 사랑을 느꼈으며 작가의 신앙심이 어머니로부터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는 『깊은 강(深い河)』의 오오츠의 말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데,

소년 시절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단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따스함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손을 잡았을 때의 따스함, 안아 주셨을 때의 체온의 따스함, 사랑의 따스함, 형제들에 비해 특히 모자랐던 나를 돌보아 주시던 따스함! 어머니는 나에게 당신이 말하는 양파 이야기를 언제나 해주셨습니다만 그때 어머니께서는 양파란 이 따스함보다 한창 강한 응어리, 즉 사랑 그 자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의 따스함의 근원에 있었던 것도 양파의 한 부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구하려 한 것도 오직 양파의 사랑 뿐으로, 이른바 교회에서 말하는 많은 교리가 아닙니다.

(少年の時から、母を通してぼくがただひとつ信じてきたのは、母のぬくもりでした。母の握ってくれた手のぬくもり、抱いてくれた時の体のぬくもり、愛のぬくもり、兄姉にくらべてたしかに愚直だったぼくを見捨てなかったぬくもり。母はぼくにも、あなたのおっしゃる玉ねぎの話をいつもしてくれましたが、その時、玉ねぎとはこのぬくもりのものと、もっと強い塊りつまり愛そのものなのだと教えてくれました。大きくなり、母を失いましたが、その時、母のぬくもりの源にあったのは玉ねぎの一片だったと気がつきました。そして結局、ぼくが求めたものも、玉ねぎの愛だけで、いわゆる教会が口にする、多くの他の教義ではありません。)<sup>48)</sup>

이러한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은 남성의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는 唯一 神의 모습보다는 聖母마리아의 모습과 일치되며 『깊은 강(深い河)』에서도 인도의 힌두교의 여신에게서 마리아와 같은 모습을 찾을 수가 있다.

『깊은 강(深い河)』의 무대가 된 인도는 불교의 발상지이지만 불교보다 힌두교의 敎勢가 더욱 강한 지역이기도 하다. 인도의 힌두교는 서구의 기독교

---

48) 상계서, p.192

교와는 다르게 다신교이면서, 汎神論的 사상에 바탕을 둔 종교인데 그래서 서구의 唯一神과는 달리 각 지역마다, 마을마다 다른 神을 섬기고 있다. 힌두교에서는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異端의 개념은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다양한 종파를 수용하고 포용하여 불교나 자이나교도 힌두교라는 큰 흐름에 흡수 할 수 있게 되었다. 『깊은 강(深い河)』에서도 힌두교의 많은 神들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神으로 차문다 라고 하는 女神이 등장한다. 이 차문다는 힌두교의 大地母神의 일종으로 서구 기독교의 성모 마리아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엔도가 神과의 <距離感>을 좁히기 위해서 작품에 서구 유럽의 大地母神인 마리아를 세우지 않은 이유는 성모 마리아는 동양인의 모습과는 다른 백인의 이미지로서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은 『女神들의 인도』라는 책을 쓴 다치가와무사시(立川武藏)가 유럽의 성모마리아의 모습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평하고 있는 것에서 근거를 삼을 수 있다.

<모신>이라고 말하면, 가톨릭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마리아라는 모신은 자신의 이미지를 특수한 방향으로 발전시켰다. 이 여신은 원래 大地母神의 요소도 지니고 있었지만, 유럽의 중세 이후 부드러움과 맑고 깨끗함이라는 면만을 이상하게 발전시켰다. 힌두교의 여신들이 지닌 무시무시한 측면은, 마녀에게 떠 맡겨 버렸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티교 세계에서는 여신의 이미지에 二極分解가 일어난 것이다.<sup>49)</sup>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서구의 聖母마리아의 모습은 二極分解에서 하나의 모습이 억제되고 나머지 하나가 과장적으로 미화된 母神이라는 것으로 汎神論的 사고 방식을 가진 동양인의 정서로 볼 때 위화감을 일으

49) 立川武藏, 『女神들의 인도』, 金龜山역, 東文選, p.59

키게 하는 부분이 있다.

『깊은 강(深い河)』에서 보여주고 있는 인도의 女神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마리아와 같이 아름답고 고결한 모습만을 가진 神이 아니었으며 흉한 모습을 하고 있다.

①「그녀의 젖가슴은 노파처럼 이미 쭈글쭈글 합니다. 그러나 그 쭈글쭈글 시든 젖가슴에서 젖을 짜내 늘어서 있는 아이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오른발이 문둥병으로 짓물러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복부는 굶어서 움푹 파여 있는데 또 그곳을 전갈이 물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녀는 그러한 병고와 고통을 참으면서도 쭈글쭈글 시든 유방에서 젖을 짜내 인간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彼女の乳房はもう老婆のように萎びています。でもその萎びた乳房から乳を出して、並んでいる子供たちに与えています。彼女の右足はハンセン氏病のため、ただれているのがわかりますか。腹部も飢えてへこみにへこみ、しかもそこには蠍が噛みついているでしょう。彼女はそんな病苦や痛みにも耐えながらも、萎びた乳房から人間に乳を与えているんです。」)<sup>50)</sup>

② 그들 여신은 유럽의 성모 마리아 상과 전혀 틀려서, 물소를 타고 앉아 있거나 마귀를 찌르고 있는 모습이었다. 혹은 남편인 시바<sup>51)</sup>를 밟고 올라서서 뱀처럼 긴 혀를 내밀고 있는 여신 카리의 흉악한 모습도 있었다.

(それらの女神はヨーロッパの聖母マリアの像とはまったく違って、水牛の上に乗り、魔神を刺しているものもあれば、夫シヴァを踏みつけて蛇のような長い舌を出している女神カーリーの兇暴な姿もあった。) <sup>52)</sup>

50) 遠藤周作(1996), 전계서 p.225

51) 시바: 힌두교 시바파의 최고신, 길상(吉祥)·상서(祥瑞)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 기원은 일설에 인도 토착민의 신앙속에 있다고는 하나, 문헌상으로는 인도 最古의 종교, 철학 문헌인 『리그베다』에 나타나며 폭풍의 신 루드라의 호칭이라고 한다. 베다 말기에는 독립된 신격을 가졌고, 최고신 또는 우주의 최고원리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 성품은 광폭하여 전적으로 파괴와 관련이 있다. 10개의 팔과 4개의 얼굴을 가졌으며 눈이 셋이고 용의 독을 마셨기 때문에 검푸른 목을 하고 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열병을 가져오는 神이지만 춤과 음악을 즐기며 이를 관장하고 고행자에게 은혜를 베풀며 生殖을 지배하는 神으로 본다.

엔도가 추구하고자 했던 神의 모습은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수용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동반자적이며 神과의 위화감을 좁힐 수 있는 매개가 필요했으며 힌두교의 여신들 중에서도 ①과 같이 인간의 고통을 함께 하고 나눌 수 있는 <차문다>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성모 마리아는 너무 신비롭게 理想化되어 있으며 인간적으로 느끼기에는 위화감과 저항감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인간들에게서 현실적으로 멀어질 수 있는 것이다. 계급(카스트)의 문제 등, 많은 질곡을 안고 있는 인도인들에게서 차문다 여신이 나온 것은 필연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 이 것을 다른 여신들과 다른..... 인도의 성모 마리아와 같은 존재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성모 마리아처럼 청순하지도 우아하지도 않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추하고, 늙고, 고통 속에 허덕이면서도 강하게 견디고 있습니다. 저 고통스러워하는 눈을 봐 주십시오. 그녀는 인도인과 함께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 여신상을 만든 것은 12세기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유럽의 성모 마리아와는 다른, 인도의 성스러운 차문다입니다.」

(「じゃ、これは、ほかの女神たちとちがって.....印度の聖母マリアのようなものですか」

「そうお考えになって結構です。でも彼女は聖母マリアのように清純でも優雅でもない、美しい衣裳もまっています。逆に醜く古い果て、苦しみに喘ぎ、それに耐えています。このつりあがった苦痛に充ちた眼を見てやってください。彼女は印度人と共に苦しんでいる。像が作られたのは十二世紀ですが、その苦しみは現在でも変わっていません。ヨーロッパの聖母マリアとちがった印度の母なるチャムンダーなんです」<sup>53)</sup>

위에서 살펴본 힌두교의 여신들의 이미지는 미츠코가 우연한 기회에 펼쳐진 성서에서 읽게 된 이사야서의 예수의 이미지와 비슷한데 그것은 추하

52) 상계서, p.186

53) 遠藤周作, 『深い河』, 講談社文庫, 1996, p.226

고 볼품없는 여신 차문다의 그것과 비슷하다.

그는 추하고 위엄도 없다. 초라하고 볼품도 없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외면했다. 피해야 하는 사람처럼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다. 참으로 그는 우리들의 병고를 짊어지고, 우리들의 슬픔을 떠맡았다.<sup>54)</sup>

( 彼は醜く、威厳もない。みじめで、みすぼらしい  
人は彼を蔑み、見すてた  
忌み嫌われる者のように、彼は手で顔を覆って人々に侮られる  
まことに彼は我々の病を負い  
我々の悲しみを担った)<sup>55)</sup>

인도인의 아픔을 모두 짊어지고 인도인들의 동반자가 되어 준 강한 생명력을 지닌 차문다와 예수의 모습이 중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엔도는 동양인의 정서에 알맞은 힌두교의 차문다를 동반자가 된 예수의 이미지와 결부시킴으로 神의 모습을 재정립하고 神과의 <距離感>을 해소했다고 할 수 있다.

## 2) 해결책

엔도의 『깊은 강(深い河)』은 <일본에 있어서 唯一神의 인식문제>와 <동·서양의 距離感 극복>에 대한 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독교의 우월 의식을 배격하고 모든 종교의 본질을 강조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일본인으로서 서구의 문명을 체험한 엔도는 서구의 가치관에 부합되는 유일신의 모습이 아니라 일본의 사고 방식에 합일되는 神의 모습을 찾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다. 그러한 결과

54) 『공동번역 성서』, (대한성서공회, 1981) p.1209

55) 遠藤周作, 『深い河』, 講談社文庫, 1996, p.285-286

로 『깊은 강(深い河)』안에서는 갠지스강, 동물, 약자, 힌두교 여신인 차문다를 통해 神의 모습을 재조명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매개체를 통한 唯一神의 조명은 엔도가 神을 보는 방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본인의 감성으로 神을 보는 방법이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유일신을 서구의 방법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아닌 일본인의 방법으로 보기 위한 해결책은 작품 안에서 보이는 汎神論的 사고 방식이나, 다원주의적 종교관 그리고 사랑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첫째 엔도는 서양인들에게서 느낀 唯一神論的 사고체계가 동양인의 정서와 맞지 않은 원인을 동양인이 가지는 汎神論的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동양인의 혈액 안에 흐르는 정신과도 같은 것으로 神을 인식 할 때 서양인들은 하나의 神을 인식하지만 동양인들은 모든 사물을 神으로 인식하는 인식의 차이였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동·서양의 이질감을 확대시키고, 일본인이 神을 인식하는 문제에 있어서 서구인과는 다른 틈을 만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엔도는 『깊은 강(深い河)』에서 唯一神의 인식 문제를 서구인이 바라보는 神의 입장에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동양인이 가지는 汎神論的인 관점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동·서양을 조화시킨 눈으로 神을 인식하게 되었다.

汎神論的인 입장이란 만물 안에서 神의 개념을 추론하는 것으로서 소설 안에서 보이는 갠지스강의 이미지와 동물의 이미지가 바로 汎神論的 입장의 대표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갠지스강은 모든 추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귀하고 천함을 구별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선과 악이 혼재한 인간의 삶을 포용하고 삶의 가식과 위선이 넘치는 인간의 삶을 되돌아 보게 함으로써 삶의 본연의 위치로 되돌아가게 하는 절대적인 포용의 힘을 지니는 곳이다. 이러한

강의 모습을 통해서 神이 가지는 포용력을 알게 하고 또한 인간 삶을 어떠한 대가 없이 받아들이는 神의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모든 것을 포용하는 강의 모습은 각 종파와 종교의 형식을 초월한 神의 사랑을 표출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더불어 갠지스강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동물의 눈빛과 행동을 매개체로 하여 神을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에게서 느낄 수 없는 삶의 깊은 위로나 정신적인 교감을 동물에게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삶의 어려움을 위로해 주는 위로자가 되어 주는 神의 모습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즉 위로의 神일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곁에 항상 존재함으로 인해서 동반자적인 역할을 해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해 준다.

서구 唯一神論의 관점으로 神을 묘사한다면 神은 정형화되어진 하나의 모습으로만 존재하겠지만 엔도는 汎神論의 사고를 받아들여서 神을 갠지스 강의 모습으로 그리고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종교 다원주의적 관점에 의해서 神의 모습을 재조명 하고자 하였는데 종교 다원주의(宗教 多元主義)라는 말은 서구에서 먼저 일컬어진 용어이다. 다원적인 문화적 양상이 종교적인 상황 안에서도 일어난 것으로 각 종교들을 상·하의 수직적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수평선상에서 인식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종교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기독교를 바라본다면 기독교라는 종교를 특수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 가운데 하나의 종교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 다원주의가 나타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구 사회는 오랫동안 유일 신앙에 근거를 둔 기독교가 그 주류를 형성해 왔으나 18세기 19세기의 서구 식민주의를 통한 지리상의 발견, 시민 운동으로 인한 시민사회 형성, 산업 혁명의 변혁의 과정을 겪으면서 종교도 다원적인 상황에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여러



문화의 발전을 통해서 인류의 문화적 <距離感>이 없어지고,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으로 인해 독립국이 늘어나면서 서구의 종교 학자들과, 선교사들은 기독교 이외의 타종교를 접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타종교와의 대화를 주장했으며 타종교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엔도의 『깊은 강(深い河)』에서는 이러한 종교 다원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는 엔도가 영국의 기독교 신학자인 존 힉<sup>56)</sup>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sup>57)</sup> 존 힉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며 모든 종교는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전통 속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문화 전통이 다양하듯이 종교도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며, 현상적으로 <하나님은 다양한 이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독교 중심적이며, 배타적인 신학의 사고 체계로부터 神 중심적 사고 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존 힉의 주장이 『깊은 강(深い河)』안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오오츠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

먼저 각 종교가 문화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개인적인 믿음 또한 자신이 속한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사람이 그가 믿는 신을 각자 선택하는 것은 태어난 나라의 문화나 전통, 각자의 환경에 의한 것이 많으며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사람들이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은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그 나라에 기독교적인 문화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중동 사람들이

---

56) 존 힉 (John Hick, 1922~) 영국의 종교 철학자이며 신학자. 그리스도교가 타종교들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신 중심적 모델을 제안한 사람 가운데서 가장 철저하고, 가장 혁명적이며, 가장 논쟁적인 인물로 종교는 다른 역사와 문화와, 전통 속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종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57) 柘植光彦, 「『イエス像-遠藤周作の円環が閉じる時』」, 『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38卷10号, 1993.9, p.79

이슬람교도가 되고, 많은 인도 사람들이 힌두교도가 되는 것도 다른 종교와 자신들의 그 종교를 엄격하게 비교해서 선택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어머니라는 예외적인 존재가 있었습니다.

(しかし、ぼくは人がその信じる神をそれぞれ選ぶのは、生れた国の文化や伝統や各自の環境によることが多いと、当然のことながら思うのです。ヨーロッパの人たちが基督教を選ぶのはその家庭がそうだったり、その国に基督教の文化が強かったりするためでしょう。中近東の人たちがイスラムになったり、印度人の多くがヒンズー教徒になるのも、他の宗教と自分のそれとをきびしく比較して選んだとはいえないでしょう。そしてぼくの場合は母という例外的な事情の影響があるのです。)58)

이러한 문화에 영향을 받은 神은 오히려 이름을 달리 할 뿐이며 더불어 여러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은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계십니다. 유럽 가톨릭이나 기독교 뿐만이 아니라 유대교도 에게도 불교 신도 안에도 힌두교 신자에게도 신은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神は色々な顔を持っておられる。ヨーロッパの教会やチャーペルだけではなく、ユダヤ仏教徒にも仏教の信徒のなかにもヒンズー教の信者にも神はおられると思います。」)59)

이러한 종교 다원주의 사고는 기독교만이 완전한 종교임을 주장하던 기존의 배타적 교리와는 매우 상반된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사고는 오오츠가 간디의 어록집을 펼쳐 들고 읽는 부분에서 엔도의 다원주의에 대한 사상을 잘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나는 힌두교도지만 종교란 크거나 작거나 할 것 없이 본질적으로 진실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종교는 같은 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어떤 종교도 완전한 것은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불완전한 인간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이다.」

---

58) 遠藤周作(1996), 전계서, pp.195-196

59) 상계서, p.196

(「私はヒンズー教徒として本能的にすべての宗教が多かれ少なかれ真実であると思う。すべての宗教は同じ神から発している。しかしどの宗教も不完全である。なぜならそれらは不完全な人間によって我々に伝えられてきたからだ」)<sup>60)</sup>

종교 다원주의는 각 종교간의 대화와 공존, 공생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각자가 섬기고 있는 종교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타인이 섬기는 종교에 대한 신념과 절대성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 다원주의는 각 종교들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각 종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 종교 다원주의는 각 종교간의 상호 이해의 차원의 넓은 안목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종교간의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타종교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한, 타종교와 대화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종교 다원주의의 원리를 생각해 본다면 엔도가 <일본에 있어서 唯一神의 인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 다원주의를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본인들에게 唯一神을 서구의 唯一神으로 받아들여게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인 神 가운데서 唯一神의 모습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神의 모습을 그려 나가고 있는 것이다. 즉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환경에 가치를 두고 종교의 본질을 외면하지 않는 이상 모든 神이 唯一神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셋째로 일본의 汎神적인 문화에서 자라 온 엔도는 汎神적인 문화와는 다르게 어머니의 영향으로 인해서 가톨릭이라는 종교를 받아들여게 되었다. 그것은 엔도가 일본의 문화 가운데 속해 있는 神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가톨릭을 믿고 있던 어머니의 영향이 컸던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엔도는 가톨릭의 唯一神을 서구의 정형화된 사고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엔도 안에서 자기화 하여 받아들여게 되었다. 이

---

60) 상계서, p.310

것은 일본인이면서도 가톨릭 신자였던 자신과, 서구적 감각으로 가톨릭을 받아들여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눈으로 가톨릭의 神을 바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엔도는 그의 소설 안에서 神을 <움직이는 사랑의 실체><sup>61)</sup>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알게된 神의 모습을 사랑의 덩어리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신의 모습보다는 神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구하고자 했던 엔도는 사랑의 생명력을 지닌 神을 소설 안에서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다.

작품 안에서 오오츠는 프랑스 선배인 자크와의 대화 중에서도 사랑의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단적입니까? 그분에게 이단적인 종교가 정말로 있었을까요? 그분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마저 인정하고 사랑 하셨습니다.」

(「ぼくは.....異端的でしょうか。あの方に異端的な宗教って本当にあったのでしょうか。あの方は違った宗教を信じるサマリア人さえ認め愛された」)<sup>62)</sup>

이 사랑은 타종교를 넘어선 궁극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해 준다. 즉 오오츠는 神의 실체보다는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길거리에 버려진 힌두교 행려자를 갠지스 강가로 옮기는 행위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행위를 실천하게 된다. 또한 오오츠는 자신의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자신도 인간들의 슬픔을 같이 느끼고 동감하기에 이른다.

임종을 앞둔 병자를 간호하는 호스피스<sup>63)</sup>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랑

---

61) 신은 존재한다기보다 움직입니다. 양파는 움직이는 사랑의 실체입니다.

神は存在というより、働きです、玉ねぎは愛の働く塊りなんです。

상계서, p.104

62) 상계서, p.311

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인물인 미츠코가 점차 헌신적인 오오츠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가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나는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한 번도 누구를 사랑했던 적이 없다 이러한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자기의 존재를 주장하려고 하는가」

자원 봉사를 시작한 것은 그녀의 도착적인 기분에서였다. 사랑을 불태우지 못하는, 사랑의 불씨가 없는 여자. 남자와 애욕을 불태우는 흉내는 몇 번 내보았으나 불씨에 진정으로 불길을 당겨 본 적이 한번도 없었다.

(「わたしは人を真に愛することはできぬ。一度も、誰をも愛したことがない。そういう人間 がどうしてこの世に自己の存在を主張しうるだろうか」

ボランティアをはじめたのは、そんな彼女の倒錯した気持からだ。愛が燃えつきたのではなく、愛の火種のない女。男との愛慾の真似事だけは何度もやったが、火種に本当の炎がついたためしはなかった。)63)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한 미츠코는 오오츠가 이야기하는 가톨릭의 예수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미츠코가 매우 경멸하고 바보와 같다고 생각했던 오오츠가 도리어 神의 사랑을 일관적으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神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더군다나 화장터에서 시신의 사진을 찍히게 된 유족들의 오해로 오오츠가 변을 당하게 되고 커다란 상처를 입고 죽게 되자 미츠코는 사랑과 희생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했던 오오츠를 연민함과 동시에 죽어 가는 오오츠의 모습 속에서 神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바보 같아. 정말 바보잖아. 당신은」

실려 가는 오오츠를 보내면서 미츠코는 소리쳤다.

「정말 바보야, 그런 양파를 위하여 일생을 바치고 자기가 양파 흉내

---

63) 상계서, p.194

를 냈다 한들, 증오와 이기주의밖에 없는 이 세상이 바뀔 리는 없잖아, 당신은 여기저기서 쫓겨나기만 하다가 끝내는 목이 부러졌어 그리고 죽어야 타는 들것에 실려서..... 자기는 결국 무력했던 거 아냐?»

(「馬鹿ね、本当に馬鹿ね、あなたは」

と運ばれていく担架を見送りながら美津子は叫んだ。

「本当に馬鹿よ。あんな玉ねぎのために一生を棒にふるって。あなたが玉ねぎの真似をしたからって、この憎しみとエゴイズムしかない世のなかが変わる筈はないじゃないの。あなたはあっちこっちで追い出され、揚句の果て、首を折って、死人の担架で運ばれて。あなたは結局は無力だったじゃないの」)<sup>64)</sup>

그러나 이러한 오오츠의 무력함과 죽음을 목전에 둔 가운데서도 神의 사랑은 <움직이는 사랑의 실체>로 간주되는데 이는 오오츠가 미츠코에게 말했던 예수와 제자들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서 神의 사랑이 오오츠에게서 미츠코로 옮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파의 사랑과 그 의미를, 살아 남아 있던 제자들은 그제야 겨우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양파를 버리고 도망가서 살아 남았던 것입니다. 배반당하고도 양파는 제자들을 끊임없이 사랑했습니다. 때문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참회하는 마음속에는 양파의 사랑이 각인 되어서 양파는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양파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하여 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玉ねぎの愛とその意味とが生きのびた弟子たちにやっとわかったんです。弟子たちは一人残らず玉ねぎを見棄てて逃げて生きのびたのですから。裏切られても玉ねぎは弟子たちを愛し続けました。だから彼等一人一人のうろめたい心に玉ねぎの存在が刻みこまれ、忘れられぬ存在になっていったのです。弟子たちは玉ねぎの生涯の話をするために遠い国に出かけました」)<sup>65)</sup>

위의 문장을 통해서 사랑은 예수로부터 제자들에게 옮겨지고 있다는 것

---

64) 상계서, p.345

65) 상계서, pp.301-302

을 알 수 있다.

또한 미츠코가 마더 테레사와 같이 일하는 수녀들이 오오츠와 같이 행려자를 옮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련하게 사랑의 행위가 끊임없이 이어져 감을 알게 되는데

우스꽝스럽다는 그 말이 미츠코에게 오오츠의 비참한 반생을 떠올리게 했다. 미조가 말하듯이 오오츠가 바라나시 거리에서 거의 죽게 된 노인이나 노파를 무료 숙박소나 강가의 화장터로 옮겼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는 것일까? 그런데도 이 수녀들과 오오츠는.....

「전 일본 사람입니다만.」

미츠코가 백인 수녀에게 말을 걸었다.

「네?」

수녀는 깜짝 놀란 듯이 푸른 눈을 커다랗게 뜨고 미츠코를 바라보았다.

「무엇을 위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나요?」

놀라움이 번지는 눈으로 수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것뿐.....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인걸요, 저희들은」

<그것뿐>이라고 말한 것일까, <그 사람뿐>이라고 말한 것일까, 미츠코는 잘 듣지 못했다. 그 사람이라고 했다면, 그것은 오오츠의 <양파> 그것일 것이다. 양파는 옛날 옛날에 죽었지만 그는 다른 인간 안에 환생했고, 오오츠 안에 환생했다. 들것으로 병원에 실려 간 그와 같이 수녀들도 인간의 강 속으로 사라져 갔다.

(滑稽と言う言葉が美津子に大津のみじめな半生を思い出させた。三条の言うように、大津がヴァーラーナスイの町で、瀕死の老人や老婆を無料宿泊所や河の火葬場に運んでも、それはどのくらい役にたつのだろう。それなのにこの修道女や大津は.....

「わたくしは日本人です」

と美津子は白人の修道女に話しかけた。

「え」

修道女はびっくりしたように碧い眼を大きくあけて美津子を見つめた。

「何のために、そんなことを、なさっているのですか」

すると修道女の眼に驚きがうかび、ゆっくり答えた。

「それしか.....この世界で信じられるものがありませんもの。 わたしたちは」  
それしか、と言ったのか、その人しかと言ったのか、美津子にはよく聞きとれなかった。  
その人と言ったのならば、それは大津の「玉ねぎ」のことなのだ。玉ねぎは、昔々に亡  
くなったが、彼は他の人間のなかに転生した。二千年ちかい歳月の後も、今の修道女  
たちのたかに転生し、大津のなかに転生した。担架で病院に運ばれていった彼のよう  
に修道女たちも人間の河のなかに消えていった。66)

예수의 분신이었던 오오츠가 사랑의 실천 행위를 통해서 인생을 마감하  
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 그리고 미츠코는 오오츠를 뒤이어 행동하는 사랑을  
계승하고 사랑의 실천을 할 것을 암압리에 내포하고 있다. 또한 오오츠 뿐  
만이 아니라 마더 테레사와 같이 일하는 수녀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神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수녀들을 바라보는 미츠코의 상념을 통해서 神  
이 사랑이 일회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재현된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범신론적 사고와, 종교 다원주의 그리고 사랑의 실천으로써의  
神을 강조함으로써 엔도는 神에 대해 독자적으로 이해했다고 생각한다.  
즉 모든 만물과, 생활 가운데서 神을 제시함으로써 일본인이 느꼈던 神에  
대한 <距離感>을 해결했다고 할 수 있겠다.

---

66) 상계서, pp.350-351



### Ⅲ. 결 론

이상으로 本稿에서는 엔도 문학의 集大成이자 末期문학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깊은 강(深い河)』을 통해서 동·서양의 <距離感> 극복의 문제와 神과의 <距離感> 해소 방안의 문제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깊은 강(深い河)』은 유년 시절부터 말년의 생애를 정리함과 더불어 엔도 문학의 일생의 주제가 되어진 동·서양의 <距離感>과 일본인에게 있어서 神의 <距離感>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작품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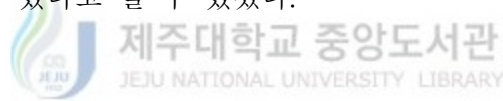
엔도가 前期, 中期 작품 시절에 가졌던 동·서양의 <距離感>의 문제는 일본의 식민지였던 大連에서 유년 시절의 체험과 어머니로부터 받아들여진 가톨릭 신앙, 제 2차 세계대전의 전쟁 체험 그리고 가톨릭 유학생으로 떠난 프랑스 유학 생활에 의해 심화되었다. 엔도는 이 <距離感>을 인도라는 제 3의 공간을 설정하여 해결하고 있다. 인도는 종교에 대한 다양성과 포용력이 존재하는 곳이며 또한 사상에 대한 다양성이 인정되는 곳으로 문화의 절충지이다. 또한 동·서양의 중간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동·서양의 <距離感>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본다.

엔도는 일본인에게 서구의 唯一神의 모습을 일본인에게 어떻게 인식시킬 것이며, 그 <距離感>을 어떻게 해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은 <일본에 있어서 唯一神의 인식 문제>라는 주제로 나타나게 되었고 汎神論的인 감성을 지닌 동양인에게 알맞은 神을 모색하게 된다.

소설 안에서 神과의 <距離感>을 해소하기 위한 매개로서 인도의 갠지스강, 오오츠로 대변되는 약자, 선한 눈빛을 지닌 동물, 힌두교의 여신을 통해서 神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만물을 안고 흐르는 갠지스강을 통해서 神의 포용력과 사랑을 나타내고 있으며, 오오츠로 대변되는 약자를 통해서

인간 심연의 나약함을 동감하고 이해해 주는 동반자로서의 神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힌두교의 여신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神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동양인의 사고방식에 부합되는 神을 재정립하고 있다. 또한 神과의 <距離感>을 좁히기 위한 해결책으로써 범신론적 사고방식을 수용하였으며, 존 희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적 다원주의의 이론을 작품 안에 끌어들이므로써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神을 인정함과 동시에 神의 구원에 이르는 길을 하나로 제시하였다. 또한 엔도는 자신이 느끼는 神의 모습을 사랑으로 활동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체로서의 神을 조명하였다.

엔도의 『깊은 강(深い河)』이 장편 소설로 생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것에 있어서도 의의가 깊지만 일본인의 감성에 적중하는 神의 모습을 찾았다고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參 考 文 獻

## 【텍스트】

遠藤周作, 『深い河』, 講談社文庫, 2001

## 1. 韓國文獻

### 【單行本】

존 H. 히 (황필호 역), 『종교철학개론』, 종로서적, 1980

立川武蔵 (김구산 역), 『女神들의 인도』, 동문선, 1993

遠藤周作 (이성순 역), 『깊은 강』, 고려원, 1994

존 M. 콜러 (허우성 역), 『떼레즈 데께루』, 청림, 1995

이은구, 『힌두교의 이해』, 세창출판사, 1997

김승철, 『엔도 슈사쿠의 문학과 기독교-어머니되시는 신을 찾아서』, 신지사원, 1998

박경희 편,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일본사』, 도서 출판 일빛, 2000

윤상인 외, 『일본문학의 흐름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1

梅棹忠夫 외, (김양선 역), 『일본인의 생활』, 도서출판 혜안, 2001

『공동번역 - 가톨릭용』, 대한성서공회, 1981

### 【논문】

이원희, 「『엔도 · 슈사쿠론』」, 『인문연구』,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4

- 최수경, 『『엔도슈우사쿠(遠藤周作)의 전기작품세계』』, 『일본 근대문학 산책2』 第4号, 한국외국어 대학교, 1994.3
- 김은영, 『엔도슈우사쿠[遠藤周作]의 小説研究-『깊은 강(深い河)』에 나타난 神의 의미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8
- 박승호, 『『엔도슈우사쿠(遠藤周作)의 『바다와 독약(海と毒薬)론』』, 『일어일문학』, 제13집, 대한일어일문학회, 2000.5
- 육근화, 『遠藤周作의 『깊은 강(深い河)』論-종교 다원주의적 신앙관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제9輯, 2000.8
- 홍정은, 『엔도슈우사쿠[遠藤周作]의 『깊은 강』(深い河)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2000
- 이수경, 『遠藤周作의 『深い河』고찰-神의 形象;의 問題를 中心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 【사전】

- 세계문예대사전 上·下, 成文閣, 1975
- 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 사전, 한국브리태니커 회사, 1993
- PASCAL 세계대백과 사전, 동서문화, 1999
- 일본外来語・カタカナ語辞典, 민중서림, 2001


## 2. 日本文獻

### 【單行本】

- 遠藤周作, 『遠藤周作』, 新潮社, 1960
- \_\_\_\_\_, 『遠藤周作全集』10券, 新潮社, 1975

- 武田友寿, 『遠藤周作の文学』, 聖文舎, 1975
- 立井秋生 外, 『遠藤周作と語る』, 女子パウロ会, 1988
- 江藤淳 外, 『群像 日本の作家』(第22巻)「遠藤周作」, 小学館, 1991
- 廣石廉二, 『遠藤周作のすべて』, 朝文社, 1991
- 遠藤周作・佐藤泰正, 『人生の同伴者』, 新潮文庫, 1995
- 遠藤周作, 『「深い河」をさぐる』, 文春文庫, 1997
- 立井秋生・玉置那雄 編, 『作品論 遠藤周作』, 双文社出版, 2000
- 遠藤周作, 『留学』, 新潮文庫, 2000
- \_\_\_\_\_, 『白い人・黄色い人』, 新潮文庫, 2000
- \_\_\_\_\_, 『作家の日記』, 講談社文春文庫, 2002

### 【論文・雑誌】

- 
- 佐藤泰正, 「『スキャンダル』を通して『深い河』へーその主題的推移をめぐる」, 『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38巻10号, 学灯社, 1993.9
- 虎岩正純, 「重層性の寓話-『スキャンダル』『深い河』論」, 『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38巻10号, 学灯社, 1993.9
- 川村 湊, 「天竺にあにまを求めて-『深い河』論」, 『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38巻10号』, 学灯社, 1993.9
- 高野斗志美, 「遠藤周作文学におけるイエス像」, 『国文学解釈と鑑賞』51巻 10号, 至文堂, 1986.10
- 『国文学解釈と鑑賞』, 『カトリック作家群像』, 特輯号, 至文堂, 1981.10
- 『国文学解釈と鑑賞』, 『遠藤周作』, 至文堂, 1986.10
- 『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 『遠藤周作-グローバルな認識』, 学灯社 1993.9

《Abstract》

REVIEW OF 『DEEP RIVER』 BY ENDO SHUSAKU

Ha, Myung-Chung

Japanes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Nan-Hee

Endo Shusaku is a third wave writer and is a representative Christian writer in Japan. The characteristics of his works can be simplified as his view of Christian religion, which is shown in most of his works. He worked on the differences between Japanese native beliefs and western beliefs. In addition, his subjects were about the matter of the human soul itself, not about external causes of human beings.

The inspiration for Endo literature came when he accepted the ideas of his mother who believed in monotheism, Christianity. His subjects included how to cope with the metamerism surrounding the West, represented by Christianity, and the East where he grew up with belief in pantheism; and how to recognize monotheism in Japan.

The subject of this thesis is Endo's late work 『Deep River』. This novel contains the experiences of his life, from childhood to his late days. This work is significant as it identifies the metamerism surrounding the West and the East, which was Endo's life long subject, and acknowledges how Japanese society recognizes monotheism.

<The metamerism surrounding the West and the East> appeared in his works as he experienced other neighborhoods during his early childhood and met with western Christianity when he studied in France. However, this metamerism is resolved by indicating India as the third place where diversity and catholicity exist. Endo thought that it was difficult to impress Asian people with God as they did not recognize monotheism. Therefore, he worked on how to make the presence of monotheism count among them. Endo looked for proper media of god for Asian people to resolve the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2.

metamerism surrounding the two cultures, such as Ganges River, animals, weak people, and Hindu goddess. Endo is also looking for an aspect of God by using not only these media but also pantheism to resolve this metamesim. Also, affected by John Hick, Endo brought religious pluralism into his works, acknowledged all gods in the world, and resolved the differences between western god and eastern god by proposing the way we can be saved. He is showing his God as lovely, active, and transcending time and space.

『Deep Rive』r is meaningful as Endos last novel in his life. On top of that, this work has great significance by simplifying the subjects of Endo literature and finding the Japanese emotional God.

